

요한복음 1 장

1.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결코 요한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가? '요한복음'이란 말에서 빠진 글자를 보충하여 완전한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요한이 전해준 복음: 어느 성경이라도 마찬가지다. 가령, 요한 계시록도 결코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가령,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주인공은 기드온이 아니다. 기드온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모세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다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모세나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논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위인전일 뿐이다. 성경을 결코 위인전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한은 전해주었을 뿐이다, 예수님을.

2. 한국 사람들은 '도를 닦는다'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그래서 '도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도사 중에 제일은 전 도사나라(?) 이 때 '도'는 길 道자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으니 도를 닦기 위해서 산에 갈 필요없이 성경을 보라고 하면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로 그 도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 무엇일까?(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설명이 붙어 있다)

말씀: 1절의 말씀에 아라비아 숫자 1이 붙어 있을 것이다. 난외에 '1호 道'라고 붙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말씀'을 '도가'로 번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 설명이 추가되어 있지 않은 성경은 속히 바꾸는 것이 좋다. 헬라말의 로고스는 말씀보다는 차라리 동양의 도에 가깝다.

3.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나 하나님보다 약간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다. 이런 이단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절을 들만 제시한다면?

1:1, 1:14: 이단들 중에서도 사악한 무리들은 자신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흔히 예수님을 꺾어내리는 수법을 쓴다. 불안정한 예수의 자리에 자신을 집어넣는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 (빌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4.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된다. 요1:1-3을 창세기식 표현으로 요약해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 계시니라'

5. 증명이란 감각기관의 범위에 들어오는 것에 관해서만 유효하다. 인간의 지혜가 가미된 것의 가치는 증명이 불가능하며 다수결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보다 더 상위개념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을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에 대해서도 증명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저 선언할 뿐이다. 예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보너스 격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두 종류의 증인을 제시하고 있다. 누구인가?

세례 요한(15)과 사도들(14)

'성경을...'란에 있는 '1. 보여주면 믿지요'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회가 되는 대로 '작은글'에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이 제 1의 창조라면 제 2의 창조라 할 수 있는 것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무엇일까?

어두움에 빛이 비치는 것(5, 9)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12-13) = 죽은 자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것: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비싼 값을 치르신 것이다. 내가 노력한 것은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이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7. 다음 중 요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은?

볼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비치는 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보다 앞선 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6, 33) 다른 경우에는 예수를 가리키는 표현이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배우거나 외워야 할 사항이 아니라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본문을 살피면 자세히 읽는 데에 도움이 된다.

8.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이나? 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 요한은 전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중에 하나를 인정하셨다. 본인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다. 요한의 어떤 점이 보이는가? 거짓말쟁이?

겸손함(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함) 예수님은 오리라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고 증거하셨다(마11:14)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만 말했을 뿐이다. 몇 백년 만에 제대로 된 선지자를 만났다고 열광하는 무리들 앞에 자신을 낮추려고만 했다.

9. 요한은 사오정이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왜 (자격도 없이) 세례를 주느냐? 그 물은 데에 대해서 요한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무엇이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훨씬 더 큰 이가 온다. 내가 그의 신들에게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위대한 그 분이 온다: 고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을 외치는 바람에 고문을 그만 두었다는 최권능 목사의 이야기처럼 요한은 고드리기만 하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함.

10. 예수와 세례 요한의 관계는 빛과 그림자, 원본과 사본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이 관계를 본문의 단어를 이용해서 나타내보자. 말씀(1)과 _____, _____와 물로 세례를 주는 자, _____과 그것을 증거하러 온 자.

소리(23),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빛.

11.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세상에 비치는 그 빛의 이름을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지 말자. 아담으로부터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오늘날 내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희생이 있었는가! 그렇게 해서 내게 전해진 복음을 내가 믿었다고? 그것이 나의 노력이라고? 오직 감사 외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12. 신들에게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니? 신들에게 풀기가 어렵다는 말인가?

그 일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가장 비천한 일이지만 요한 자신은 예수의 그런 종으로도 과분하다는 말이다. 무릇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의 이런 자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13.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 역할만 하고 비켜서야 한다. 요한은 이 점에서 어떻게 칭찬 받아 마땅한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 예수께로: 교회에서 아이들을 혹은 교인들을 자신의 풀마니로 만들지 말자.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자신은 빠져야 한다. 죽은 후에 기념비는 물론 묘비조차 세우지 말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런 자세였다. 그런데 그 후예들이 자기를 내세우는 통에 교회를 영광으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14. 다음 말을 번역하면? (어느 나라 말을 어느 나라 말로?)

랍비 → 선생

메시아 → 그리스도 → 기름부음을 받은 자

게바(아람어) → 베드로(헬라어) → 반석(한국어):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언어는 아람어였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것과 오랫동안 바벨론이 세력을 떨친 탓이었다. 로마가 세력을 떨치자 공식 언어는 헬라어가 되었다. 일반인들은 히브리어를 거의 알지 못했다고 한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의 성경은 히브리어였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강론하신 자체만으로도 일반인에게는 경악할 정도의 실력이었다.

15.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말을 하는 것은 메시아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아는 탓이다. 예수를 향하여 대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는 말을 좀 아껴야 한다. 1) 빌립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은 무엇이며 2)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거기서 보았다는 말 한마디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가?(분명하지는 않으므로 짐작으로)

1)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런 본전도 못 찾는 말이다. 대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반론에 부딪혔다. 물어뜯 말을 좀 물어두어야 한다.

2) 분명하지 않다. 다만 율법에 정통한 그가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원래 무화과나무는 그늘이 커서 그 아래에서 교육도 하고 교제도 하던 장소였다.

16. 빌립은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45):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말한 것도 바로 이 예수에 관한 것이었다.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과 예수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본이 안된 사람이다.

17. 빌립의 전도방법은 '와 보라' 한 마디 뿐이었다(39, 예수님도 그랬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뛰어난 기술도 필요 없고 오는 사람도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멋진 전도방법이다. 우리도 이 방법을 애용하려면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할까?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한다: 보여줄 것도 없이 흥내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사람만 끌어다 모으는 식의 전도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 풍성한 잔치가 준비되어야 길거리와 산골가로 나가서 강권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먼저 보여줄 거리를 열심히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 없이 열심만 내는 전도는 요란하기만 할 뿐이고 소위 전도자의 낫만 내고 마는 것이다.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식의 무책임한 전도도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맡길려면 다 맡기지 왜 일부만 맡기나?

18. 영어권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행위이다. 한국식 인사 '어디 가십니까?'를 'Where are you going?'으로 옮기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날씨이야기를 먼저

떠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It's fine today.' 이러면 날씨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뜻이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관용적으로 물었던 질문이 있다. 영어식보다는 한국식에 가까운 표현이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한 수 배우고 싶다)

19. 예수의 첫 제자는 이름이 기록된 안드레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아마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들의 동향친구 베드로와 빌립도 어쩌면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다. 그가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줌으로써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한 것이다: 개척 교회를 시작하노라고 하고선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리로 옮기는 것을 막는 모습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요한은 위대하다.

20. 세상에는 기막힌 현실도 참으로 많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보기에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있다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11).

사 1:2-3: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요한복음 2 장

1.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젊었을 때 가출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가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사명을 위해서 가정을 버린 것이 아님을 설명해 보자.

초기에 제자들을 모으고 함께 다닐 때 가족과 함께 있었고(2, 12) 따라서 가족들도 동의를 했을 것과 어머니도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4-5).

2.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찾아보자.

예수의 모친, 제자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3.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니? 이런 불효가 있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인간 마리아에게 그렇게 부를 수 있다.(X) 번역상의 문제일 것이다: 헬라 원어 '귀나'는 왕후를 부를 때, 자기 아내를 다정스레 부를 때에 사용된 최대의 존칭어였다고 한다. 결코 하대하는 말이 아니다. 공동번역은 '어머니'로 번역됨.

4. 물을 포도주를 바꾸는 것은 기적은 기적이지만 기적 중에는 좀 쉬운 것이 아닐까? 쉬운 것일까 어려운 것일까? 이유는?

쉽다: 같은 액체잖아.(X)

어렵다: 물은 분자식이 H_2O 지만 포도주는 술이니 C_2H_5OH (에탄올)라면 C라는 탄소가 필요하다. 같은 액체니까 쉬울 것이라고? 분자식을 아는 사람이 보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5. 물 떠온 하인들도 웃기는 사람들이다. 예수의 모친에게야 하인들에게 일을 시켜도 될 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지시는 선뜻 실행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무엇인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항아리는 손님들의 손,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둔 곳이다(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 손님들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주라니? 예수님의 기적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친의 신앙과 예수님의 효심과 하인들의 영문도 모르는 순종이 합하여 일어난 것이다. 결과로 신앙이 아름다운 칭찬을 들었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강화되었다.

6.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난처한 일이다. 신랑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옆집에서 빌려오거나 사람을 보내서 사오거나 해야 했을 것이다. 그것마저 쉬운 일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이런 어려움이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될 때 어떤 풍성함(좋은 점)이 있는가?

돈이 들지 않는다: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매사에 돈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정상이고 하지만 그리 좋은 자세는 아니다.

고생은 적게 하고 칭찬은 실컷 들게 된다: 예수로 말미암은 문제해결, 즉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지만 사실은 가장 편안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적이다.

7.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늘나라가 혼인잔치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은 천국을 혼인잔치와 결부시켜 설명한 곳이 많이 있다. 혼인잔치와 천국은 어떤 점에서 닮았는가?

신랑, 신부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
기쁨이 넘치는 곳

8. 다음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인가? (답을 결정하고 난 후에 본문을 볼 것)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여기의 연회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9. 창세 때에도 혼인이야기가 나오더니 예수님의 사역초기에도 혼인잔치에 가셨던 이야기가 나온다. 성경과 혼인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혼인에 비유하고 있다. 혼인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10. 예수의 모친은 뭔가를 알고 있었다. 잔치집의 어려운 형편을 알리는 것이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는데도 하인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을 보면 모친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음. 아들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것.

11. 예수님의 모습은 대체로 점잖고 암전한 샌님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성전에서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광패의 모습이다. 암전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때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예언의 성취(17): 시 69:9

12.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방법이 아무래도 과격해 보이는데 그래도 괜찮은가? 예나 지금이나 장사꾼들은 이럴 때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예수님의 행위를 설명해보자.

너무나 과격해서 짝소리 없이 물러났다.(X)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행위가 설득력이 있었다는 뜻.

13. 성전을 청결케 하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제대로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은 제대로 대답을 했을지라도 유대인들과 당시 제자들에게는 완전한 동문서답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먼 훗날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참된 성전 곧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길은 예수요, 예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임을 잊어버리고 권물이나 내 교회라는 생각에 현혹되어 있거나 많은지 살펴보자. (같은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무의미한 말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무한한 감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들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유대인이 되느냐 제자가 되느냐의 차이이다)

14. 성전을 청결케 하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제대로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다.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대답을 잘해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왜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까? (기드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 것을 참고하자)

믿으려는 마음만 있었더라면 굳이 구하지 않아도 예수의 표적은 얼마든지 보았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다. 끝까지 버티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맞은 바로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자세가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이런 때에 잘 어울린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대답은 성경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론으로 대항하다가는 끝도 없으며 오히려 자신도 휘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을 논리로 설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5. 예루살렘 성전은 곳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일년에 한 차례씩 찾아왔던 신앙생활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한 대목 볼 수 있는 돈벌이 장소였을 뿐이었다. 교회당은 어떤 곳인가? 연애를 위한 장소일 수도 있고 사교를 위한 장소일 수도 있고 에누리도 잘 안 하는 단골손님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혹시 나를 과시하기 위한 장소는 아닌가? 교회는 내게 어떤 장소인가?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16.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2장에서는 이적과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직접 선언하시지는 않았지만 간접으로 이렇게 선언한 표현을 찾는다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17.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결론을 내보면 공통으로 관련이 되는 단어는 무엇인가?

믿음(1-11, 12-22, 23-25): 예수의 이적이나 말씀은 믿을 만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18.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교회를 세우고 위력을 과시해야 예수님의 사역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끌어 모을 수는 있어도 제대로 된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르침과 교제를 통하여 교육되고 양육되어야 한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즉 토양을 다지는 일과 일꾼을 키우는) 외에 십자가라는 또 다른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 약 39분량 (두 말)

요한복음 3 장

1. 니고데모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바리새인: 유대교 중에서도 엄격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종파

유대인의 관전: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회의 일원으로 독자적으로 종교법과 의식의 문제에 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재판에도 참여하거나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가리고 판별하는 책임도 이들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선생(10): 수년간의 정규 교육기관을 거쳐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40세가 넘어야 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랍비라고 부른 사실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2.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온 자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

3.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하나님의 자녀(창 17:1-8)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다. 따라서 니고데모에게 가장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였을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바람이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사실이다. 다만 소리를 듣고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흥길동인가? 이 말씀의 요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다: 왜 그러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말이 안 믿는 친구들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 나의 행동에서, 보아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어야 옳다. 매사에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다룰 수는 없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안 믿는 친구들이 나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뜻이다.

5.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그는 예수님에게 여전히 호의적이었다(7:50, 19:39).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완결짓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버린 것은 이 대화를 서두로 삼아 그 다음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니고데모를 언급하면서 요한이 말하려고 한 핵심은 무엇인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6.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생을 얻는 또 다른 설명(14-18)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간단히 무슨 말인가?

예수 믿으라 = 영생을 얻는 또 다른 설명은 14-18절이다.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라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자신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다. 물로 몸을 씻듯이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가능한 일이다.

7.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기적같은 일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도처에 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거나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충분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표적을 보고 생긴 믿음은 무엇이 더 필요할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들이 다 예수를 따르지는 않았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진정한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믿는 것이다. 기적은 단지 이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지 결코 그 길은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자.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은 성경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8. 자전거도 못 타면서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겠니? 그렇게 쉬운 문제도 못 풀면서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고 하니? 이런 말씀이 있는가?

12: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9. 구약에서 속죄를 위하여 양과 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육식체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류의 대속물로 죽게 될 예수의 상징이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을지라도 그것을 흠양하시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은 양과 소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죽음을 보시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14)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다음 글을 참고해서 설명해 보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많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해결책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두고 쳐다보라는 것이었다. 쳐다본 사람은 전부 살았다(민 21:9)'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것을 쳐다본(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뜻

10. 요 3:16을 외워서 적어보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다. 어느 단어 때문일까?

세상: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1. 입학시험은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한 시험인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인가?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은 떨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을 바꾸자. 나를 입학시키려고 시험이 있는 것이다. 입사시험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시험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가? 혹시 떨어진다 해도 일단은 시험이 있음을 먼저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는 심판자인지 구세주인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믿는 자에게는 구세주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자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달린 문제다.

12. 결례(潔禮)란 정결에 관한 예식이란 뜻이다. 여기서는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인 것 같다. 즉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유대인과 변론(논쟁)하다가 자기 선생님께 와서 결례 문제를 언급하는 대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보고한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 논쟁의 주제는 결례라기보다는 무엇이었을까?

세례(세례도 좀 넓게 보면 결례의 범주에 들 수 있겠다)

13.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유대인과 변론(논쟁)하다가 자기 선생님께 와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보고한다. 미루어 짐작컨대 그 유대인이 무엇이라고 주장했을까? 뒤이은 요한의 대답은 자기 제자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을 것이다.

너희 선생님의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보다 시세가 떨어진다.

14.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제일 견디기 어렵지만 책을 아끼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구하기 어려운 책을 잃어버리거나 책을 천하게 취급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일 수 있다. 그것은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다. 그럼에도 자기에는 기쁨이 있다. 1)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니 2)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1) 신앙의 음성을 듣는 기쁨

2)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데서: 자신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것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31-36).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신앙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15.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갔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이유이다.

16. 어떤 훌륭한 목사님은 자신의 무덤에 묘비마저 세우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 그 묘지가 후손들에게 우상이 될 것을 염려한 것이다. 세례 요한도 나중에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가 생길까 염려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고 신신당부했는가?

28: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제자들)

17. 시골에서 하숙할 때의 이야기이다. 세수하다가 보니 바깥 말라서 비틀어진 새끼줄이 보였다.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보니 새끼줄이 아니라 호박넝쿨이었다. 탐스런 호박이 담 위에 보름달같이 올라 있었는데 줄기가 아직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 줄기는 가느다란 새끼줄처럼 말라비틀어져서 죽은 것 같았다. 이젠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줄기를 왜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가 하는 의아스러움이 생겼다. 물어보았더니 호박을 딸 때까지 그대로 둔단다. 새끼줄보다도 더 가늘고 형편없이 말랐지만 저렇게 탐스런 호박이 영그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바로 이 줄기를 통해서 공급되었을 것이란 생각에 경외감마저 느껴졌다. 모든 것을 전달하고 자신은 말라비틀어진 채 사람의 시선에서 사라져가는 모습이 누구를 닮았는가?

세례 요한: 우리 모두는 이와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우리는 빠져나와야 한다. 사마리아 여자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이 조금 보인다(4).

18.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신적 탁월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는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도 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위시해서 어떤 사람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늘에서 난 자: 요한이 아무리 뛰어난 자(눅7:28)라 해도 그는 땅에서 난 자이다.

19.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해도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했으니 말이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 외에 또 무슨 영광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하여 인치는 의미

20.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일체라면 굳이 성령을 주신다거나 만물을 그에게 주신다는 표현은 이상하지 않은가?

예수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1. 3:16에서 다음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를 찾으시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인데 하나님인줄 나를 어쩔거야?’

멸망(滅亡), 즉 망해서 없어진다는 것이 오해를 부른다. 사람이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죽음은 단지 장소의 이동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멸망의 의미는 영속하는 고통의 삶을 말하고 영생은 영원한 기쁨의 삶을 의미한다.

관원(官員):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公議會)의 일원으로 독자적으로 종교법과 의식의 문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재판에도 참여하거나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가리고 판별하는 책임도 이들에게 있었다.

결례(潔禮): 정결에 관한 예식, 본문에서는 세례를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다.

요한복음 4 장

1.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였고 가끔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걸로 되어 있다.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데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바리새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2. 이스라엘은 크게 3개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쪽에 유대 북쪽에는 갈릴리 그러면 가운데는?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역드자' 형태로 돌아다녔음) 앗수르에 의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이들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예루살렘과 오랫동안 정치, 종교적으로 단절되어 그리스 산에 성전을 세우고 혼합주의적 색채를 띤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따라서 서로 교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행마저 꺼려서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길이지만 '역드자' 형태로 돌아가면 6일이 걸리는데도 결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다. 갈릴리 지방은 사마리아보다 먼 곳이며 비록 촌놈 취급은 받았지만 동쪽으로 대우를 받은 것은 후대에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강제이주를 당했기 때문이다.
3.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이유를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리에 갔기 때문: 제자들이 없으면 물도 못 떠먹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피곤하여 그대로 앉아계셨지만 전도를 위한 계기로 삼으신 것이다. 피해를 주지 않는 적당한 신세를 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4. 전도도 호기심을 가질만한 게 있어야 한다. 여인의 호기심을 자극한 첫 번째 시도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 아마 죽으면 죽었지 더러운 너희에게 얻어먹지는 않는다는 식의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모욕적인 비유인 셈이다. 또 한 가지, 랍비는 공식적으로 여자와 담화를 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여자에게 말을 건 것
5. 여인의 호기심을 자극한 두 번째 시도는?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6. 이 사마리아 여자가 웃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떤 말이 웃기는가?
자기가 목이 말라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주제에 거꾸로 자기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니
7. 여인의 호기심을 자극한 세 번째 시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8.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동문서답 같다. 왜 이렇게 초점이 맞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결코 물이 아니다. 복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물길러다니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생수에 관심이 있다.
9. 여인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1) 물 좀 달라 - 이상한 유대인 남자
2) 과거를 안다 - 선지자
3) 이야기를 해 보니 - 메시아
10.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물은 질문도 역시 동문서답이 되고 말았다. 여인이 물은 것은 예배의 처소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
예배의 자세: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고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라는 자세가 중요하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 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도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는 일이었다. 아브람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창12:6), 야곱이 각종 우상을 파묻고 마음을 새롭게 한 곳(창35:4)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약을 새롭게 한 맹세의 장소(수8:30-35)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마지막 유언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11.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 ()이다. 쓸데없이 엉뚱한 곳에 신경쓰지 말라는 말씀이다. 가령, 영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복장, 청결, 액수, 격식, 열심 등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살펴보자.
(신령)과 (진정): 하나님은 영(4:24), 사랑(요일4:8, 16), 빛(요일 1:5) 소멸하는 불(히12:29)
12.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다음 생각들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가르치시는가?
1)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어 그 자손들을 먹여 살린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물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2) 이 산(그리스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자세다: 예수님도 짜증이 나겠다. 실컷 설명해 주니까 하는 소리가 메시아가 오면 다 가르쳐 주겠조라니...
13.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서 어느 대목에 관심이 끌리는가?

그 사람의 필요나 관심에 자신의 메시지를 연결시켜서 결국은 자신이 그 메시아임을 설명해 냈다.

14.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것과 이 여자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한 계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가르친 것보다는 자신의 과거를 다 아는 것에 더 은혜를 받은 모양이다: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이랄까 그것 때문에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된 것 같다. 때로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영동한 친절 하나에 마음이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를 진심으로 대하는 참된 친절도 대단히 중요하다. 복음을 처음 받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별 것 아닌 일에 은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15. 예수님의 열심: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았다가 물 길으러 온 여자에게 생수를 주제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음식을 권하자 양식을 근거로 또 복음을 설명하고 언제 물 먹고 언제 밥 먹었을까? 어떤 성경구절이 떠오르나?

답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16. 양식이란 먹고 힘을 얻는 원동력이다. 예수님에게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의 원천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피곤하여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 왔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으신 모양이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평화가 없을 때는 매일 먹는 양식이 진정한 양식이 되지 못한다. 사람에게 영이 먼저냐 육이 먼저냐의 차이일 것이다. 영이 진정한 양식으로 살찌야 육도 건강하게 되는 법이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지만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

17. '자존심은 버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자존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열심히 토론을 벌였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두 사람이 사용하는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 이처럼 생각이 다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의미가 전혀 달라서 동문서답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어떤 단어가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가?

생수, 양식, 추수(눈, 밭, 회어집):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나 제자들이 보기에는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비쳐진다.

18. 교회는 친구 따라 올 수도 있고, 연애하려고 올 수도 있으며 어떠한 동기로 나와도 괜찮다. 다만 바르지 못한 동기가 바른 동기로 바뀌어 가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먼저된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찾아왔지만 이들을 함께 유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구주인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여자에게 굉장한 기쁨을 주는 말이다. 우리가 교사로, 목사로 사역을 한다면 결과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쓸데없이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야 하고 내 풀마니나 잔뜩 만들어두는 따위의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19.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표적과 기사를 의도적으로 더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왕의 신하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며 예수께서 왕의 신하에게 의도적으로 더 보여준 표적은 무엇인가?

와서 고쳐달라(47, 49, 53) ↔ 가지 않고 고쳐줌

요한복음 5 장

1. 베데스다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유독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불쌍했기 때문이다: 남보다 더 불쌍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사하자. 그런 와중에서도 낯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 감히 38년이나 포기하지 않고 낯기를 소원할 수 있을까? 혹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몇 년이나 할 수 있을까?

2. 네가 낯고자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 병자가 기대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의 대답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도와서 빨리 물에 넣어주는 것: 예수를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행복은 이전에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 길을 알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38년 된 병자가 하는 짓을 보면 안 고쳐주는 건데... 왜?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 예수를 일러바쳤다.

4.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율법의 어느 규정 위반인가?

안식일에 짐을 나르지 말라는 규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 따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많이(39가지) 규정해 두었다. 그 중에 짐을 나르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다. 그래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이 규정 위반인가 아닌가라는 논쟁도 있었단다.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상상해 보라.

5. 다음 세 질문은 똑같은 것이다. 한꺼번에 답을 해보자.

- 38년 동안 병들어 누웠던 자가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에 감사해야 옳은가? 아니면 안식일 위반이라고 고발을 해야 하는가?

-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 이걸 기적이다. 그 친구가 내게 못마땅한 짓을 했다. 그래도 나는 그를 미워하거나 교제를 끊을 수 없다. 왜?

- 전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왔다. 같이 앉았더니 고약한 냄새가 났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나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내게는 미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미워할 수 없다.

6.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주목하게 된 것은 요한보다 세례를 받는 자가 더 많다는 점이었다. 본격적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안식일을 범한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

7.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신다니? 도대체 지금까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우주 관리? 하나님께서 어지간히 할 일이 없나?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하는 것이다'는 말씀을 참고로 생각해 보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린 것은 아담과 하와다. 그 이후 하나님은 편히 안식하시지 못하신다.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날까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8.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고(21),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25). 죽은 자에게도 희망이 있네?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28절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며 악한 일을 행한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일 뿐이다.

9.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긴다.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려운가보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현실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며 때로는 경우에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더 소중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

영원한 죽음 - 심판의 부활, (요5:29)

10. 다음 세 문장과 뜻이 통하는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낸다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심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나를 공경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것이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18c)

11.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 강하게 강조할수록 그럴 가능성이 없다. 반드시 그렇다기보다는 경험상 그런 일이 많았다는 말이다.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며 자신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말을 듣고 믿으라는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든 목사님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아니,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따른다고 주장함: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 것만 행할 뿐이며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만 수행할 뿐이라고 하신다. 반면에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목사님의 경우에는 말씀과 행함이 따로 놀아서 권위가 떨어진 경우가 더 많았다. 그 약점을 억지로라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12. 세례 요한의 증거는 아무 효과도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세례 요한을 보내고 뭐하러 먼저 보냈는가?

요한의 증거가 아무 효과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소홀히 대접한 적이 없다. 오히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마 11:11)고 칭찬하신 것을 보아도 그렇다.

13. 성경을 읽고 아브라함은 위대하다, 다윗도 위대하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이런 주장은 좀 달라져야 한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성경은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즉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요 5:39, 46).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췌할 수 있어야 한다.

14.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위하여 두 가지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다.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음에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5:42)

15. 30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증거를 제시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문제이지만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제시한 증거는 네 가지인 셈인데 무엇인가?

하나님(30-32, 37), 세례 요한의 증거(33-35), 자신의 사역(36), 성경(38-47)

16. 원래 가짜는 진짜보다 더 그럴 듯하다. 겉모양만 번드르르한 가짜에 속기 쉬운 것이 사물의 본질을 눈으로만 확인하는 우리의 한계가 아닐까? 좀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까?

가짜 메시아가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것을 환영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예수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멸시를 당했다. 그러나 가짜 메시아는 항상 화려한 모습으로 와서 자신이 영광을 차지했다(43-44).

17.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는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범한다는 점과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기 때문이었다. 그 외에도 그들이 적개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말을 했다면?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모세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자기들을 하나님께 고소한다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말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그들을 향하여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남의 삶의 근거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충격적인 말이다. 모세의 글도 오실 메시아를 겨냥하고 있는데 그들은 내용보다는 형식과 외식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요한복음 6 장

1. 떡을 먹은 사람은 성인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단다. 그러면 전체는 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 이들에게 아주 간단한 식사를 제공한다 해도 돈이 얼마나 들까? 1인당 2,000원 씩이라도 2억원이다. 이렇게 큰 돈을 그 당시의 유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200 데나리온

2. 10,000명이 넘는 무리가 잔디밭에 앉았고 이들에게 떡을 배달하는 제자가 12명이다. 1인당 손님이 1,000명인 셈인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제자들이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녀야 했을지 눈에 선하다. 그 떡과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고기와 떡보다 이런 능력을 가진 예수가 원수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어쨌거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예수는 그들을 모두 제자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 같다. 노력은커녕 오히려 피하는 것 같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하시는가?

그들의 잘못된 메시야관 때문이다. 예수는 이 땅에 죽으려고(희생제물이 되려고) 왔는데 왕관을 씌우려 하다니...

3.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으니 얼마나 열광적인 팬이 되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뿌리치실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이적을 베풀었을까? 뒤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하면서 생각해 보자.

이런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임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기회다 싶어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 하였다.

4.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베푸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를 볼 때마다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요구하던 바로 그 ()이었다.

표적

5.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꽤 많았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도 그 중의 하나였다. 예수님은 그 만나를 어떤 떡이라고 암시하고 계시는가?

가짜 떡: 만나에 대비하여 자신을 참 떡이라고 하셨으니 그것은 가짜 떡인 셈이다. 생명의 떡인 예수를 상징하는 그림자라는 말이다. 그것은 먹어도 끝내는 죽는 떡이었지만, 자신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이다.

6. 오병이어의 기적은 맛배기다. 그저 맛만 조금 보라고 주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는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보거나, 병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그런 기적은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래서 시작한 신앙생활은 그것보다 더 감격적인가? 기적이냐 병고침은 맛배기요 그로 인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짜배기다. 그럼에도 맛배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신자가 너무나 많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진짜배기를 배불리 먹고 있는 감격이 있어야 제대로 예수를 믿는 셈이다.

7. 자신을 찾아서 해마다 간신히 찾아와서 (교통편도 없었는데) 언제 오셨습니까(25)?라는 팬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시큰둥하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니? 왜 다독거리서 전부 제자로 만들지 않았을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과 어떻게 다를까? 마음만 먹는다면 세계적인 대형교회를 세우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우선적인 목표는 죽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나머지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야에 대한 개념이 달랐다. 예수는 정치적 메시야가 아니라 고난 받는 종으로 오셨다.

8.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은 전도, 양육, 파송, 봉사 등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의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지 않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미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까? 다른 일에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다. 열심히 뛰어다녀야 믿는 것으로 생각한다.

9.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은 맛있는 식사 때에 화장실 이야기를 꺼낸 것이나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무슨 식인종인가? 더구나 피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이 있는데 피를 마시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언제쯤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과 그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신 후에(62):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는 말이었다.

10.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를 믿지 않은 원인은?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잘 아는 점(42) (그릇된 메시아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마 13:57, 막 6:4, 눅 4:24, 요 4:44)고 말씀하셨다. 고향의 소꿉친구와 결혼한 사람이 현재 남편, 혹은 아내의 모습보다 어릴 때 코흘리며 조금 얻으려 다니던 모습이 더 많이 생각나면 불행한 것이다. 옛날 어린 시절의 모습을 자꾸 그리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 모른다.

11. 성경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설명한다. '배는 고프지만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숨기고 있다가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자 따라서 다 내어놓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내노라고 머리에 쥐가 나지나 않았을까? 모든 기적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내려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을 바르게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인지 절감하게 된다. 각설하고, 이들의 주장이 옳지 못하다는 쉬운 증거를 찾아보자.

배부르게 먹었다. 12 바구니나 남았다: 각자 따로 도시락을 싸왔다면 배부르게 먹고 남을 수 없다. 모자라야 정상이다.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가 아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12. 예수님께서 나누어주신 떡을 먹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다음 구절과 관련이 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 지니라(신 18:15)'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행 7:37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즉,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14)란 바로 모세가 가리킨 선지자를 말한다. 그 선지자가 오거든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생각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

13.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따르면서 표적을 요구했다(30). 안 믿겠다는 말이 아니고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이다.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31)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장황하다(32-65). 결국은 다 떠나 버렸다.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무슨 표적을 보여야 하는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이적,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외쳐도 믿지 않는다.

1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예수의 말이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말이었던단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설마 자기 살을 베어주겠느냐'고까지 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열심히 성찬식을 하라는 말인가? 일년에 한두 번 밖에 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다. 29, 35, 36, 40, 47, 64, 69

15. 번역하면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만나'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나'와 우리말의 '떡'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무엇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할까?

만나는 매 끼니마다 먹었던 양식이었다. 반면에 우리말 떡은 '별미'를 가리키므로 특별한 경우에만 먹는 음식이다. 서양 사람들의 빵에 해당한다. 밥이나 양식(27)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16.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가르치기 위함(3)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하시기 위함(15)이다. 그러면 여기서 바다를 건너다니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피하기 위함? 그래도 죽으라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다 떠나가게 만들어버렸다(66).

17.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1) 디베랴에서 배들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23)는 말은 좀 이상하다. 실제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

23절의 디베라는 도시 이름이다: 헤롯 안디바 왕이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디베료(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AD 16-22년에 갈릴리 바다의 서쪽 연안에 건설했던 성읍. 비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로 호칭했다(요 6:1: 21:1).

18. 요한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 21:25)' 본 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말이 정말인 것을 알 수 있다. 할 얘기가 많았을텐데 짧막하게 줄여버린 것 두 군데를 찾아보자.

2절: 병고친 사람이나 재미있는 사연도 한 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16-21절: 무서워서 떨던 장면이며 베드로가 용감하게 가다가 물에 빠졌던 것은 아주 재미도 있을텐데... 요한은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별해서 하고 있는 셈이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는 것이다. 생략된 두 개의 다른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은가? TV 드라마? 왕권? 허준?

요한복음 7 장

1.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은 이스라엘의 중심지대인 유대나 예루살렘이 아니다.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셨으며 왜 그랬는가?

갈릴리,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실제적인 이유가 또 있다. 예루살렘은 수도지안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은 평지이기 때문에 대도시는 아니라도 성읍이 대단히 많아서 인구가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소문이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에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이다.

2.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고선 올라갔다? ‘아직’ 때문에 거짓말한 것은 아닌가? 혹시 같이 가면 형제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따로 갈려고?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드러내놓고 활동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10)

3. 유대로 가라는 형제들의 요구는 이번 기회에 자신을 드러내고 출세를 좀 해보라는 뜻이 아닐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4) 함께 다니면서 배운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믿지 않는 형제들이야 더 하지 않겠는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능력있는 예수님이 죽으려고 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4. 전영창 교장은 우리나라 국비 유학생 1호였다. 미국의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전쟁 직후 폐허가 되다시피한 한국으로 돌아와서 말은 일이 시골 학교 교장이었다. 직업 선택의 실패명에서 ‘가장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곳이면 기꺼이 가라...’ 그 분의 삶(75년에 작고)을 아는 후학들이 그 분의 삶을 보면서 이런 계명을 만들어 내었을 것이다. 그 분을 보고 ‘그만한 학력과 실력이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시골구석에서 눈물 뿌려가며, 굶어가며 그 고생을 하느냐? 대도시로 가서 꿈을 펴보라’고 권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권한 분들과 유대로 가라는 예수의 형제들을 비교해 보자.

전 교장의 주위 사람들: 그 분의 학식과 인품에 비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 안타깝워서 그랬을 것이지만 또 한편 시골에 버려진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고자 하는 그 분의 진실된 신앙도 좋지만 이 생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

예수의 형제들: 예수를 위하는 마음보다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했지만 그냥 형님일 뿐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메시아니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5.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면 기이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음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형제들: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왜 시골에 숨어 지내나 서울로 가서 뜻을 펴지 않고?

무리들(두 종류): 좋은 사람이다. 미혹하는 사람(사이비, 이단이라는 의미)

6. 예수의 형제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기가 어렵다. 인간적인 면만 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17):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분별하고 나의 가르침에 그러한지를 살펴보면 바로 볼 수 있다.

외모가 아닌 공의의 판단으로 하면(24)

7.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보고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가? 글을 아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문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글이 보편화되지 않고 한문이 독재하던 시절을 회상해 보라. 한자만 좀 쓸줄 알아요 마을의 유지요 어른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던 시절이 그리 오래 전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정당의 이름보다는 짐승이나 가축 그림을 보고 투표하고 있다. 코끼리당도 있고, 우산당도 있단다. 예수님 당시의 공식적인 언어는 헬라어였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언어는 아람어였다. 따라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가르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움의 대상이 된다.

8.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19)’고 하니 미치고 꼴짝 뿔 노릇이다. 안식일 문제를 예로 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들의 노력에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화되었기 때문이다: 고마운 마음은 전혀 없지만 스승의 날이니까 인사치레로 선물을 주고 돌아서서 욕을 한다면 그것을 알고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형식화된 예배나 의식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9.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23):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시행되었다(레12:3). 따라서 안식일에 태어난 아이는 안식일에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할례란 것이 몸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라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이 할례보다 못한 것이냐는 말이다.

10.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인간적인 다른 조건에 더 관심을 가짐으로 결과적으로 예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 예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출신 성분: 죽이려고 하더니 공개적으로 활동해도 잠잠한 것을 보니 당국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모양이지? 그의 출신 성분을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럴 리가 없다(25-27).

학력: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15).

출신지: 멀리받던 갈릴리 출신이다(41).

11. 예루살렘 사람 중에 예수님의 고향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요7:28-29)’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임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인용한 말씀 중에서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참: ‘선하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12.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30)’는 말씀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때를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분위기까지 간섭하고 계심을 뜻한다: 예수를 잡든지 그냥 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었음을 뜻하는 말이다.

13.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하고 듣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니 대화가 늘 겉돌 수밖에 없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물만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아예 식인종을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하는 곳과 무리들이 생각하는 곳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말해보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곳: 외국으로 (망명이라도 가는가?)

예수님이 뜻하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

생각이 다르면 같은 언어,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나름대로 ‘정의’가 필요하다. (거룩, 구원, 믿음, 사랑, 자유)

14.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각양각색이다. 선지자(12), 사이비(12), 메시아(31), 미치광이(12), 죽일 놈(30)... 체포령이 내린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내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정도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증거는?

어떤 사람들이 당국자들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함(26)

15.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37-38)’라고 가르치신 것은 초막절의 어떤 행위와 관련이 있다. 다음 초막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다(출34:22). 수장(收藏)절이라고도 부른다(출23:16). 추수감사제인 동시에 신년제이기도 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의 장막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처함으로 지켜졌다]

이스라엘이 물없는 광야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인 것을 기념하여 초막절 행사에서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바치는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

16. 예수를 잡으러 갔던 하속들이 예수를 잡지 않고 돌아와서 대답하는 것을 보면 예수의 주장이 옳고 그들의 차원이 아니라 뛰어난 가르침이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교훈에 놀라워하면서 받아들이는데 반하여 무식한 것들이 무엇을 알겠느냐는 마음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당국자나 바리새인들

17. 사람의 능력을 따지기 전에 출신지부터 따지는 것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악습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릇된 편견(갈릴리는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표현되면서 무식하고 천박하며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지역으로 간주됨)과 오만한 독선(자신들만 율법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여김)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말일 뿐이다. 요나(왕하14:25), 나훔, 호세아가 갈릴리 출신이었으며, 메시아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사9:1. 마4:12-16)하고 있음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이미 자세히 조사했다면 고의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무엇인가?

예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라는 것: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42). 예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인 것을 정말 물랐을까? 아니면 고의로 성장지만 따지는 것일까?

18.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51)는 니고데모의 말은 지당한 말

이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다른 바리새인들의 말은 너무나 거칠다. 그런 소리를 계속하면 너도 갈릴리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는 말로 더 이상의 대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말았다.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면 무엇이냐고 대답을 하겠는가?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반대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류의 항변이 가능하겠지만 온건파 열 명이 강경파 한 사람을 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세상 은 악이 득세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홍경래의 난 이후 그 지방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 요직에 오를 수가 없었던 것도 비슷한 현상으로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다.

요한복음 8 장

1. 예수를 고소하려는 사람들이 무슨 권수라도 잡을 심산으로 간음한 여자를 잡아왔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예수님이, '용서해주라' 하면: 명백한 율법 위반으로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게 된다.

돌로 치라' 하면: 메시아라 할 수 없다. 혹은, 로마에 살인 교사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

2. 땅에다 무엇이라고 쓰셨을까? 왜 그랬을까?

무엇이라고 쓰셨는지는 알 수 없다, 기록에 없으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용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흥분한 군중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는 다시 앞뒤로 글을 쓰셨다. 무슨 내용인지 남아있지 않은 걸로 보아 무슨 대단한 내용은 아닐 듯싶다. 마치 군중들의 반응에 무관심한 듯 낙서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 입에 거품을 물고 열을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조용한 한 마디가 중요하다.

3.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것만 나쁜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하나 저지르면 연속해서 저지르게 된다. 가령, 간음하다 잡혔으면 남자는 어쩌고 여자만 잡아왔나? 남자는 죄가 없는가(레20:10)? 그것 외에도 이 사람들이 나쁜 점을 드러내는 다른 표현을 찾는다면?

7절: 물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물었다는 것이다.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빨리 대답하라고 계속 압박지른 셈이다.

4.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 한 마디에 모두가 물러갔다는 말씀을 보면서 요즈음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가?

순진하다. 다들 양심은 있었다. 요즈음은 낯 두꺼운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구나 어른부터 먼저 갔다는 순서도 감동적이다. 요즈음도 죄 있는 순서대로 줄을 세워보면 어른부터 먼저 설까?

5.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을 듣는 느낌이 어떨까? 또 앞으로 누가 이런 말을 듣게 될까?

처음 잡혔을 때에는 수치심이 들었겠지만 죽기로 작정하고 나면 당당해지기 시작하고 적개심을 품기 시작한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태산같은 적개심이 눈녹듯이 녹게 만든다. 영적 간음을 행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우리들.

6. 영어 사전에 *noise*를 찾아보면 '소음, 시끄러움... (自稱)위대한 인물'이라고 된 것을 볼 수 있다. '(自稱) 위대한 인물'은 소음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인데 1) 본문에서 이와 흡사한 말을 찾는다면? 2)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1) 13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래도 요즈음은 자기 PR 시대라서 이런 것이 좀 통할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2)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 외에 없다는 점이다. 지적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통하는 언어나 표현을 수준이 전혀 다른 예수님과 우리, 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한다(14).

7. 증거, 혹은 증인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13)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증거지만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증거는 무엇인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는 말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가 둘이라는 말: 본인을 제외하고도 두 사람이 더 필요한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증인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았다. 이것은 어차피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선언일 뿐, 대화차원이 아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8.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는 속담도 있지만 '떡을 모양 보고 먹느냐'는 말도 있다. 좋은 떡은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가? 기준을 무엇으로 결정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잡은 기준을 예수님께서 무엇이 라고 하셨는가?

육체를 따라 판단함(15):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예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9.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13, 22, 25, 33, 52) 예수님은 그들의 차원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답을 하시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아버지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이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대답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는 대답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어쩌란 말인가?

믿으란 말이다(30,45): 진지하기만 하다면 행하신 일과 가르침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이 물기만 하지 말고 믿으란 말이다. 질문의 의도가 책잡기 위함이니 굳이 납득시키려고 하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10. 유대인들과 예수의 대화는 완전히 동문서답이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21) 하니까 무엇이라고 대꾸를 하는가?

자살하려는가(23): 이걸 완전히 코미디다. 듣고 안다는 말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즉,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물어도 알아듣지 못한다.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면 설명해 주어도 자신의 생각대로 상상해서 듣게 된다.

11. 유대인들의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을 않으신 것과 결과적으로 동문서답을 하게 된 주원인은 무엇일까? 유대인들의 말 속에서 찾아보자.

네가 누구냐?(25),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19),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53): 요약하면 예수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23).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메시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니까 대화가 걸도는 것이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런 질문에 대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번 두번 이야기 한 게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내 대답을 알면서 왜 자꾸 묻느냐?

12.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논쟁은 결국은 싸움이나 적개심의 분출로 끝난다(20,40,59). 전제가 다른 사람끼리의 논쟁은 원래 해답이 없는 법이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도 결국은 그렇게 끝이 났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예수님처럼 피를 토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진리를 강하게 주장한다?: 그렇게 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다. 전도의 차원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논쟁은 피하고 감정, 인성적인 면에서 접근을 시도한다: 격렬한 논쟁보다는 조용한 감동이 사람을 휘어잡는다.

13.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32)'는 말씀에 우리는 별로 감동을 받지 않는 셈이다. 누가 가장 실감나게 이 말을 느낄까?

죄짓고 숨어다니는 자수한 사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편안함을 얻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진정한 자유란 아버지, 어머니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부모를 떠나서 자취를 하는 것이 소원인 학생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부모가 얼마나 그리고 소중한지를 실감하게 된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제약이 많은가? 그런 것들이 나를 구속하고 있다고 느끼면 완전한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은 탓이다.

14.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도 오해를 많이 받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라고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누가 어떻게 오해를 할지 예를 들어보고 반대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진리를 학문,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운동권 학생들이 기다리는 새날, 새 시대를 가리키거나 인권 운동가들이 평등한 인권을 찾는 것을 가리키거나...: 대학교의 교훈으로 사용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신학교의 교훈이라면 오해가 없겠지만 일반대학의 교훈이라면 '진리가 학문을 가리키는 말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다(36).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이다.

15. 유대인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33)고 말하는 것도 교방지거나 무식한 소리다. 사사기 시대는 양반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식민지 백성으로 로마를 섬기는 주제에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 아니, 종이 체질화되고 나니 종으로 사는 것이 마치 자유인처럼 여겨지는 모양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로마의 종으로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누구의 종으로 보이는가?

죄의 종(34), 마귀의 종(44):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 하는 짓이 아브라함의 행사가 아니라 마귀의 행사였다(39-40).

16.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고 미치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했다.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욕을 했는가?

사마리아 사람(48): 혈통과 종교적인 면에서 혼합된 잡종이란 의미로 사용된 말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다.

17.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용하여 예수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했음에도 잘 안된 이유는 무엇일까?

법조문은 잘 알지만 법을 초월한 다른 법이 있음을 몰랐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고 있지는 않았다.

18. 이 대화를 읽던 어느 여성도가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이 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을 갓 넘었을 때인데 유대인들이 '50도 되지 않은 네가(57)'라는 말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10살이나 많아 보였을까? 하고, (우리 옆집 순이가 우리 엄마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따지러 가야겠다. 이런 아이들 노래가 있었는데...)

19.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과정에서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고통을 몸소 느꼈다. 그 지독한 아픔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외아들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아픔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의 몸부림을 쳤을 것이다. 그것을 짐작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으니라(56).

20.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으니 동문서답이요, 마이동풍이다. 예수님은 참으로 답답했겠다. 말도 못 알아 듣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 아무리 설득해도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다. 결국 예수님은 맞아죽을 뻔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 말이다.

맞아 죽어야지: 모두가 답답하게 느낀다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 때문에 일의 진척이 느리고 되는 게 없다 해도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면 더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맞아 죽을 각오라도 하고.

요한복음 9 장

1.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

1) **제자들의 생각**: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다.

2) **예수님의 생각**: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사람들은 이런 불행한 일을 보게 되면 무언가 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범죄했거나 조상으로부터 나쁜 인연을 끊지 못해서 그렇다거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그런 불행을 당한 원인을 따지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이웃이나 형제가 혹시 독한 병에 걸리거나 집안에 우환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흔히 그가 무슨 나쁜 죄를 지은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기 일수다. 그런 분을 방문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거나 '하나님, 이 불쌍한 형제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옳지 못하다. 하나님께 야단맞은 옴의 친구들이 한 짝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비는 것뿐이다. 거기서 한발짝 더 나간다면 그런 이웃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죄의 결과로 온 질병도 있고 하다. (5장의 38년 된 자)

2. 예수님의 말씀(3)은 이 사람이 소경이 되어 지금까지 거지생활을 한 것이 이날 이때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소경으로 만드셨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일을 위하여 고의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만 이런 현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다. 굳이 원인을 따지려면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다. 왜 저렇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란 말이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3.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편이 지금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밤은 어떤 형편을 가리킬까?

심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일차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직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을 때가 바로 낮이다.

4.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에 있는 말을 이용하여 답하시오.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단순하게 수 사학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실로 그는 어둠에 빠진 자에게 빛으로 오셔서 영, 육간에 필요를 다 채우시는 예수님이시다.

5. 세상 천지에 싱거운 사람들이다. 소경이 눈을 뗐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기는 왜 데려가나?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 한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생전에 보지 못할 기적이 아닌가? 본인에게만 기뻐할 일이 아니라 모두가 기뻐할 일이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느냐부터 따지자는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되레 소경으로 만들겠다는 말인가? 이웃이나 친구의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하자. 사촌이 산 땅에 풍년이 들도록 기도하자.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닌가?

6.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웃기는 질문을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의 어느 질문이 웃기는 질문인가? 왜?

모든 문제에 권위있는 해석자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일(16)을 두고 결인이었던 사람에게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고 묻는 것. 반면에 이 결인의 대답은 명확하고 확고하다(17, 25, 30-33). 실제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삶은 이런 위력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와 같은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한다.

7.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 모두가 따돌리면 혼자 지내면 되지? 왕따 당한 학생의 부모에게 이런 소리했다가는 맞아 죽지 않을까? 성경을 읽다가 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을까?

출교(내칠黜, 가르칠敎):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유대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것이며 완벽한 왕따 현상이다.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왕따 당한 학생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따른다. 이게 무서워서 아들이 눈을 뜬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8. 법정에서나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 미리 선서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본문에서도 형식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선서용 문구가 있다.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심문에 임하기 전에 선서용으로 사용한 말을 찾아보자.

24: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9. 우리 조상들이 심문을 할 때 발견해낸 기막힌 질문은 '네 죄를 네가 알렀다'라는 것이다. '예'라고 대

답하지 않을 수 없는 기막힌 질문이다. 그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유도심문이라는 것이 있다. 심문하는 사람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나오도록 하는 질문이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넌 지시 압력을 가하는 표현이 있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24)

10. 이 소경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무엇으로 유명했는지? 증거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점, 유명한 거지

11. 본문에는 두 종류의 소경이 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소경 외에 또 어떤 소경이 있는가?

무식하고 거지로만 살아온 자에게서 '이상하다(30)' 소리를 듣는 영적 소경들(39) - 자신이 소경인 것조차 모르고 있음(40-41).

12. 눈을 뜨고 보라. 이렇게 말로만 해도 될텐데,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서 씻으라?

치유하실 때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있고, 말씀만으로 해결한 경우도 있다. 그 차이는 아마 복잡한 절차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경우에는 복잡한 순종을 요구하면서 더 큰 결과를 가져다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나아만, 수로보니게 여인, 여기 소경, 특이한 경우지만 백부장, 돌아온 문둥이 등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13. 눈이 멀어 거지생활을 한 사람이 당대의 지도자요 지식인들에게 당당하게 대꾸하며 되레 큰 소리를 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편견에 사로잡혀 현실을 의도적으로 자주 부인하려니마 =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니 자주 무리수를 들 수밖에 없다.

14.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39). 정말일까? 그럼 어떡하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말이다. 죄없는 자가 형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15. 한평생 소경으로 살아온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 그에게 한 수 배워야 한다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것이다. 우리 집 하녀로 있던 여자가 상관의 부인으로 둔갑해서 나타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그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아니면 무엇이 부러운가?

체험에서 우러난 자신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나만의 고백 그것이 필요하다. 무식하지만 그 체험이 당대의 학자들 앞에 굴하지 않는 자세를 갖도록 해준 것이다.

16. 눈을 뜨게 된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추궁당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를 닮아 지혜로운 삶을 살자. 것처럼 제자다운 삶을 살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그 소경이 듣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

나는 그냥 경험한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이론보다 이런 경험에 바탕을 둔 신앙이 더 힘이 있다.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취한 태도가 거창하게 제자다운 삶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단지, 그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론에서 경험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다소 허약해 보일 뿐이다. 기죽지 않아도 된다.

요한복음 10 장

1. 그 때에도 가짜 목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던 모양이다. 양의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란다(1). 지금도 이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강도가 많이 있는 모양이다. 진정한 양의 목자인 것을 구별하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담을 넘지 않고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을 말한다. 초대 교회의 온갖 문서들 중에서 정경을 분리해내는 기준도 이것이었고, 수많은 영들 가운데서 올바른 영을 분간해내는 방법도 이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앎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예수를 메시야라고 고백하면서 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자가 따로 있는 교활한 경우도 있으니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양이 따르는 자: 양이 따르지 않으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바른 목자에게만 양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들에게도 광적으로 따르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2.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는 방법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 하나 뿐이다. 담을 넘는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따라서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따르는 경우, 즉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설교나 성경공부도 마찬가지다. 설교 시간에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영동한 세속 지혜만 가르치는 경우나 성경공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가령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하는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담을 넘는 경우: 1차적인 의미로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적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교회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혹은 자신의 출세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선포되는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과 예수인지 아닌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3. 큰 우리 안에 여러 목자의 양떼가 섞여 있으면 눈으로는 이게 몇 무리의 양떼인지 조차 분간이 어렵다. 뒤섞인 양떼를 어떻게 손쉽게 분리해 낼까?

목자가 부르면서 앞서가기만 하면 된다: 제대로 된 신자와 엉터리 신자가 함께 뒤섞여 있어도, 신자와 불신자가 뒤섞여 있어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깨끗이 분리될 것이다. 모래 속에 쇠불이가 섞여 있는 것이 전혀 분간이 안 되도, 아니 섞여 있는 것조차 몰라도 자석을 갖다 대면 쇠가루만 딸려 나오듯이 분리될 것이다.

4. 우리에게 특별히 문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목자가 문에 누워서 문의 역할을 하곤 했단다. 이런 문의 두 가지 역할은?

들어오게 하는 역할과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 다시 한 마디로 줄이면 양을 보호하는 역할이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십일조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은 결코 규모없는 삶을 살지 못한다. 월급 받는 사람은 비교적 쉬울지 모르나 장사를 하거나 건축 일을 하는 경우라면 계산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제대로 십일조를 하려면 자신의 수입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국은 자신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것은 논외로 하고.

5. '학교의 문'이라는 것은 말이 되는데 '학생의 문'은 좀 곤란하다. '양 우리의 문'은 말이 되는데 '양의 문(7)?' 아무래도 이것은 어색한 표현이니까 적절하게 의역을 해보자.

양의 문 = 양을 위한 문: 과연 예수는 양을 위한 문이다. 자신을 희생시켜서까지 양들이 안전하게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6. 예수님도 참!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어? 그러고 보니 그 다음에는 조금 부드러워졌다. 뭐라고?

삿균: 예수님을 가리켜 위대한 스승, 혹은 성현 중의 한 분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자기만 제외하고 모두가 절도요 강도라는 그런 성현이 어디 있나?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100% 자신의 말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결코 어중간한 태도는 있을 수 없다. 다른 성현이라는 위대한 스승들도 다 절도, 강도인가?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이 땅위의 스승의 역할은 했겠지만,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역작용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자.

7.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리와 싸운다. 그렇다고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 죽기까지 아니, 죽기 위해서 싸우셨다. 양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것이다. 선한 목자 중의 선한 목자이시다.

8.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지만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가리키는 말은 몇 절인가?

16절: 복음 안에는 모두가 한 형제자매이다. 지방색도 피부색도 상관없다. 빈부도 소용없고 학식의 유무도 결코 차이가 아니어야 한다. 초대교회의 성도 중에는 주인과 종이 같이 교회를 다녔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9. “애 너희들 HOT 잘 아니?”, “예!”(천둥치는 소리), “그러면 가서 돈 좀 빌려 올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 반응이 천태만상이다. 잘 안다고 하는 데도 돈을 못 빌려오는 것은 인격적 교제나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쓸 필요도 없다. 아이들 말마따나 나는 아는데 자기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솔직히 우리말로 이런 것도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어떤 정도로 아는 것일까? 성경에서 구체적인 실례를 찾아보자.

계세마네 동산의 기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행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셈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 뜻을 따르셨다(17-18). 서로의 마음과 뜻을 잘 아시기 때문이다. 완벽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죽을 병에 걸려서 ‘살려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가는 것이니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는 정도면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의미는 이 정도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알고 계신다.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자식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한다.

10. 유대인들의 갈등이 몹시 심했던 모양이다. 예수를 보고 귀신들렸다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의 말이 귀신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 혹은 행위에 특별한 능력이 있음: 능력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너무 파격적이어서 따르기가 겁이 나고, 권력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을 놓기가 싫기도 하고.

11. 14-15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설교를 한다면 무슨 오류가 있는지 지적해보자.

‘양은 IQ도 낮고 시력도 형편없고 다리도 짧아서 도망갈 능력도 없다. 목자의 보호가 절대로 필요하다. 따라서 1) 양도 목자를 잘 알아야 한다. 2) 양은 목자를 잘 따라야 한다. 3) 양도 목자의 보호를 잘 받아야 한다.’

오류: 본문의 주어는 예수나 목자이다. 어떤 예수며 어떤 목자인지에 관심이 있다. 결코 양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12. 통일교를 위시한 사이비에서 주로 하는 말이지만 예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지만 능력 부족으로, 혹은 그 시대 사람들이 완악함으로 잡혀 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패하거나 완수하지 못한 예수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이 메시아로 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이 어디가 틀렸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신 것이며,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다. 결코 실패가 아니다(18). 예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신을 가리켜 희생제물이라고 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Ransom)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10).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몸값입니다(마 20:28, 막 10:45).

13.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려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른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숨이 막혀서 살기 어려우니 결혼하기 전에 잘 살펴야 한다. 여기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꼭 그런 것 같다.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시오’라는 유대인들의 주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 두 가지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의 행한 일을 보면 자명한 것이 아니냐(25)?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30).

14.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고 해놓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다(25, 30)’고 대답을 하자 돌을 들어 치려 하다니 도대체 유대인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돌로 치겠다. 여기서 가부장 끝장을 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되어 이 땅에 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단지 옛날의 사사나 마카비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을 뿐이다.

15. 다음은 사도 바울이 부른 승리의 찬가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확신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합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5-39)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29).

16. 수전절은 수리아의 폭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 더럽혀졌던 성전의 회복을 기념하여 유대 전역에서 8일 동안 지켜졌던 유대인들의 절기다. 잃었던 국권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절기는 기슬래월(12월) 25일에 행해졌다. 요세푸스는

이것을 '빛의 절기'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의 어떤 절기와 가장 가까울까?

광복절: 이 절기에는 집집마다 작은 기름병에 불을 붙여 두었기 때문에 빛의 절기라고 불렀는데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광복절과 많이 닮았다.

17.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해도 참람하지 않다고 제시하는 두 가지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신이라고 하신 성경말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시 82:6)

스스로 행하신 이적들

18. 초대교회 시대에 많이 나타난 이단들은 대체로 삼위일체와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은 삼위로 '구별'이 되면서 동시에 '한 분'으로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단이 되는 것이다. 가령 물이 어름, 물, 수증기의 세 형태를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중대한 이단(양태론)이 된다. 구별과 하나됨 중에 하나됨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중에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여기서는 명백하게 구별되면서(나와 아버지) 동시에 하나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1 장

1. 3절의 '사랑'과 5절의 '사랑'은 다르다. 우리말로 분간이 되지 않지만 원어상으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헬라어에는 사랑의 종류가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라는 단어들이 있다. 3절과 5절에 사용된 사랑은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을지 추측해 보자.

3절: 필레오: 일반적으로 친구의 우정이나 학문을 좋아하는 것

5절: 아가페: 대체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마리아의 형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격이 높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틀림없이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질과 양에 있어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높은 것이다. 설마 '에로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인 사랑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2.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세 형제가 예수님을 특별히 좋아하고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것도 어쩌면 애정표현이 아니었을까? 혹자는 마리아가 창녀였는데 죄사함을 받고 감사해서 그랬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여기의 분위기로 보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막14:3, 마26:6을 참고해서 그 이유를 말해보자.

나사로가 원래는 문둥병이 들었는데 예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같다. 더구나 이들 형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꽤 유명했다.

3. 병에 대한 견해에는 세 종류가 있다. 범죄에 대한 징벌, 부패한 자연 현상,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 등이다.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원하지 않는 큰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먼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간이 되지 않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떤 원인으로 왔고 하나님께 말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니까. 타인의 경우에도 합부로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자세로 형제를 대해야 한다.

4.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 누이들의 생각은 예수께서 여기 계시다면 죽지 않을텐데,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빨리 오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다. 장사를 다 지낸 후에 오셨다.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그런데 크게 원망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다. 우리 같으면 먹살을 쥐고 흔들 수도 있을텐데... 왜 그럴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체념하고 있는 것 같다: 대단한 부자면서 지독한 구두쇠 아버지를 가진 아들처럼 궁색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다. 말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분의 능력이 자신들의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좀쌀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누이들이 예수님의 일부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5.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을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다니?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 자체가 아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이 병으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14). 그럼에도 예수님의 눈에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그것만 보이는 것이다.

6. 예수님이야 나사로의 병이 죽을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치자. 누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많은 사람이 슬픔에 잠겨버렸는데도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유하다가 온단 말인가? 다음 중 어느 설명이 가장 옳은가? 아니면 참고해서 다시 설명해 보든지.

1) 급하게 빨리 와서 죽지 않게 했을 때의 결과보다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의 기쁨은 더 크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꿈으로 (소경의 눈마져 뜨게 하시는데 이 정도야.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릴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런 결과를 예수님은 기뻐하셨다(15).

2)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오는 데에도 죽히 하루는 걸렸을 것이고 바로 출발한다 해도 또 하루가 걸린다.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39)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14)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늦게 오신 예수님께 크게 원망하지 않은 것도 이미 늦었기 때문일 것이다.

3)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보다 더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나사로는 어차피 죽을 것이고 다시 살리면 되니까...

4)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찾아 다녔는데(8)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면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인 것이다.

위의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답은 4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쩌면 일부러 천천히 오셨을 수도 있을 것이다(4, 15, 30). 비록 일시적으로 큰 슬픔을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잠시 후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을 터이니까.

7.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한 예수를 맞이하면서 마리아가 진정 원한 것이 무엇일까(22절)? 네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리라고 했을 때 마지막날 부활에는 다시 살겠쥬 하는 것을 보아서 오라비를 다시 살려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원망의 또 다른 표현: 마리아의 네 마디 말(21, 22, 24, 27)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믿기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다. 다소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당시로는 훌륭한 믿음이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 여기 계시지 않았음을 원망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8. '지금 유대로 가면 돌에 맞아 죽는데요'라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서는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요 11:9-10)"라고 대답을 하셨다.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 때나 실족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다 때가 있느니라. 걱정하지 말고 가자. 더구나 친구가 잠들었으니 깨워야지: 빛이 있을 동안에는 실족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다.

9.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지만 나서기도 잘한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지만 칭찬도 많이 들었다. 조용하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보다 어쩌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면서도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나 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보자. 이 본문에서 베드로를 가장 닮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르다: 혼자서 예수님께, 마리아에게로 뛰어다니고(20, 28) 대답도 툭툭 잘하고 있다(21-22, 24, 27, 39). 반면에 마리아는 좀 느리다? 디두모도 답이 될 수 있을 터이지만(16) 이 본문에서는 마르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말을 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 말을 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들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들린다는 말도 진리이다. 본문 어디에 그런 현상이 있는가?

11-14: 예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말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죽었다고 정정했다. 얼마나 찜찜없는(김빠지는, 맥빠지는) 짓인가? 들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들린다는 말은, 곧 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보인다는 말이기도 하다(사람의 지혜와 관련된 것들, 예컨대 음악, 미술, 어학 등등). 좀더 발전하면 믿어야 보이는 것이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인간관계, 하나님에 대한 지식).

11.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거의 없다. 아마 겔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와 여기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이 그렇게 슬펐을까? 예수님의 임무와 관련을 지어보자.

아담의 범죄 이후 죽음의 지배하에 있는 인생의 초라함, 불쌍함 그런 것이 아닐까? 혹은 사탄의 득세함?: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다급한 반응을 보이지하지 않았으니 나사로의 죽음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나사로의 죽음보다 마리아나 다른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고 민망하게 여기신 점도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12. 죽음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들은 낱수는 사흘이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사흘이 지나면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영혼도 영원히 육체를 떠난 것으로 여겼다. 지금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 하는가?

나흘: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밝히는 말이다. 더구나 냄새까지 났다.

13.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행한 예수님의 기도가,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와 어떻게 다른가?

간구가 아닌 감사의 기도,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 구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알고 감사하는 기도이다.

14.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까? 아니다. 다른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듣지 아니하리라(눅 16:31)'는 말씀과 비슷한 현상을 찾아보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해바치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자신들도 표적(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계산(50-53)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율법을 준수하는 지도자들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15.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로 불렀단다.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되나? 큰 소리가 더 위력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기도할 때 크게 부르짖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경우에는 곁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을 위함이다: 죽은 자에게 큰소리든 작은 소리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차피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기도에도 그런 원리가 작용함으로 반드시 큰 소리여야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반드시 작은 소리여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란 말이다.

16.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는 가야바의 말(50)은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틀린 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여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로마를 자극하여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염려에서 한 말이다.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람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선악에 대한 판단도 없이 사람을 죽인다? 사람들이 왜 그를 따르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옳은 말: 어차피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다. 한 사람이 죽어서 유대민족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가야바의 의도는 틀린 것이지만 그 말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말을 선용하실지라도 본인의 말은 틀린 것이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꾀를 부리고 있지만 대제사장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안다면 기절을 했을지도 모른다.

17. 어차피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또 다시 나사로는 죽을 것이고 그 누이들은 또 울게 될 텐데 이런 슬픔을 두 번씩이나 겪게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괜히 예수님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런 글을 버젓이 신문에 실는 철학자가 있었다. 이 분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 줄까?

아무리 사색을 즐기는 것이 철학자의 본분이라도 인간적인 슬픔과 기쁨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죽을 때가 되지 않은 오라버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누이들의 아픔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죽을 건데 뭣하러 살려놓느냐고? 또 배고플텐데 뭣하러 먹느냐고 물어볼까? 다시 배가 고플 때는 고프더라도 지금은 먹어야지!

18. ‘요한복음의 7대 에고(I) 에이미(am)’라는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다라고 밝힌 것을 말한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하여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다음 중에서 찾아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11:25):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임을 밝히시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12 장

1. 예수님에게 먼저 뛰어오는 것이냐(요 11:20) 예수님을 이 집으로 모셔 들인 것은 마르다이다(눅 10:38). 마르다는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반면에 마리아는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은가?

마르다처럼 앞뒤를 별로 가리지 않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은 사고도 많이 치고 일도 많이 벌려놓는다. 누군가가 옆에서 잘 도와주기만 한다면 많은 일을 하기도 한다. 바로 그런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다. 마리아처럼 양전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작이 느린 사람(활동적이기보다는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화려한 업적은 별로 남기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눅 10:42)는 점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필요한 사람이다.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2.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지극히 비싼 것(3)이라고 한다. 가치는 계산이 빠른 유다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일년 연봉인 셈이다. 이렇게 비싼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연이 있다는 뜻인데?

평소에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일 것이지만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이유 아닐까(9)?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메시아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7)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마리아가 그런 의미로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역사의 위대한 발견들 중에는 우연하게 발견된 것이 많다. 여기서 말하는 우연이란 처음부터 계획하고 목적하지 않았던 것이 뜻밖에 발견되었다는 뜻이다. 마리아의 처음 생각도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해석하고 계시는 것이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뜻하지 않았던 위대한 발견을 한 셈이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우연히 위대한 발견이 찾아오듯이 예수를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위대한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3.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그 중에는 유다가 나름대로 메시아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적극적으로 계산하고 그랬다는 사람도 있는 판에 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나쁘게 말하는 것 아닌가?

사람은 그 정도로 나쁠 수 있다: 어떤 사회이건 어떤 조직이건 간에 재정을 쥐고 있으면 당연히 힘이 생기고 지배력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을 맡은 사람은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배신자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더 크겠지만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

4.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 비싼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 예수님의 대답을 이용해서 대답을 해보자.

특수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도움 기회가 있겠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5. 예수의 발에 부어진 향유를 보는 시각이 예수님과 가롯 유다는 판이하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다는 매사를 돈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예수님은 매사를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지어 생각한다. 같은 말을 듣고 같은 사물을 보아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전혀 상반된 해석과 행동이 나오게 된다. 무의식 중에 이런 일이 생기므로 평소에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확립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감추려 해도 포장하려 해도 사실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前職, '고향'... 또 뭐가 있지?

6. 사람이 악해지려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른다. 타락한 이후의 인생은 평소에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이 잘 되어있지 않으면 적절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짐승보다 더 악해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걸 더욱 나쁜 일이다. 어떤 점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들이 하지도 못할 일을 함부로 허물어 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냥 가만히 보존이라도 해야지; 하나의 전통을 세우는 것과 허무는 일, 돈을 버는 일과 쓰는 일 등등은 전자는 대단히 어렵지만 후자는 쉽다. 자신이 잘하지 못하면 남이 세운 것을 허물지나 말 일이다. 자신은 못하지만 남이 하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주로 시기심에서 오는 일이지만 여기 대제사장들은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더 큰 이유이다.

7. 호산나라는 말은 '오 구원하소서'라는 말이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하는 것은 군사적 승리를 경축하는 의미이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은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가? 일반적인 경우의 왕은 말이나 병거를 타는 것과 비교해 보자.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15절의 인용구는 속9:9이다. 비싼 말을 살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며 동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왕이 아닌 평화의 왕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8.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

고 부른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최초의 말씀이란 뜻이다. 아담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을까? 대답을 하기 전에 힌트가 될 만한 구절을 먼저 찾아보자.

16절: 예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지 제자들도 몰랐다. 나중이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러하다면 일시적 흥분과 기대감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하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명확해진 것이다. 죄인들을 홍수로 멸하시며 유향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없으신 하나님이 진짜인지 호세아를 위시한 선지자들의 말처럼 이스라엘을 애타게 찾아 해매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구약만 아는 사람은 헛갈리게 되어있다. 예수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로소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9.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던 이 무리들이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된다. 대중의 인기라는 것은 믿을 것이 못되고 군중심리에 의한 것도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태도가 결코 신앙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릇된 희망, 즉 뛰어난 정치적인 메시아의 등장을 바라는 그들의 소망이 군중심리에 편승해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군중심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무슨 원인이 있는 법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사로를 살리신 일(17-18):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적의 체험은 신앙을 출발하게 하는 동기일 뿐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10. 현상 수배 중인 예수님이 나귀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일단 기가 질려 버렸다(19). 이제 그들이 취할 태도는 두 가지 밖에 없다.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한 가지라면 또 다른 한 가지는?

더욱 교활해지는 것: 이후 그들은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마침내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시키고 만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신들의 말대로 '온 세상이 저를 좇는' 결과를 가져 올 줄이야.

11.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24)'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땅에 갔다 묻으면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생명: 이 문장의 강조점은 '죽으면'에 있다.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우선 생명이 있어야 죽을 것 아닌가?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전태일이라는 열혈 청년이 자신을 불사름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 셈이지만 진정한 밀알은 아니다. 결코 그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하다는 것과 영혼을 살리는 죽음과는 엄연히 다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값싸게 아무데나 인용하지 말라.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온 세상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12. 예수를 만나려고 빌립을 찾아갔던 헬라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무척 궁금하지만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 궁금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들이 뵈고자 한다는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 보면 완전히 동문서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 될 것도 같다. 23-27의 말씀이 그 헬라인들의 요청에 대한 대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무슨 메시지가 담겼을까?

찾아오는 것은 잘했지만 때를 잘못 잡았다: 예수님은 지금 드디어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신다. 그것도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신다. 이런 판국에 한가롭게 헬라인들을 따로 만날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이 말씀이 바로 그 헬라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들을 말씀이었겠지만 찾아온 헬라인들에게는 지금이 한가롭게 그럴 때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13.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 한 적이 없다. 그의 생애가 이 십자가 죽음을 겨냥한 것이었고 모든 가르침과 행함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27절 말씀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가? 아니라면 예수님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참으로 존경하는 선생님이 어느 날 내게 자그마한 일을 맡기셨는데 잘 한다고 했는데 그만 실수를 해버렸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 벌은 어떤 벌이라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매를 맞는 것이 더 후련하기도 했다. 다만 그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두려웠다.

14.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이 몰랐다면 다른 군중들은 더더욱 몰랐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환호했다는 뜻이 된다. 열렬한 환호가 며칠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로 바뀐 이유를 알만하다. 아무런 위협이나 박해가 있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변해버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믿는다는 의미도 잘 모른 채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일제나 6.25 동란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죽음에 내어준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남 따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자신도 모른 채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 예배, 헌금, 기도, 헌신, 전도... 제발 의미를 알고 행하자.

15.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그 내용을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발음이 분

명하지 않아서 그럴까? 듣는 사람의 귀가 시원찮아서 그럴까?

마음에 없으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한부선 선교사는 완벽한 한국말 그것도 경상도말을 구사하는 미국인이었다. 그 분이 어느 미군부대를 방문했을 때 한국인 초병에게 다가가서 한국말로 용무를 말했는데 글썽 한국인 초병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더라. 외모를 보면 완전히 미국사람이니 으레껏 영어가 나오려니 하고 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유창한 한국말이 튀어나오니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기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듣는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있어야 들리고 생각이 통해야 들리는 것이다.

16.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울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하였다고 했단다.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따지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시비비보다는 기도에 대한 이런 응답을 통해서 제자들이 위로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따지지 않아도 될 문제는 좀 접어두고 어느 것이 좀 더 본질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필요하다.

17. 역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하셨는데 해룻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예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의미한다. 창3:15절의 표현을 빌리면 드디어 뱀이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터지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발꿈치를 물리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로 인해 사탄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해룻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다.

18. 33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지 미리 말씀하셨단다. 어디서 말씀하셨는데?

땅에서 돌리면(32):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요 3:14)’라고 하셨다. 물론 그 원형은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을 염두에 두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모세가 뿔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뿔뿔을 쳐다본즉 살더라(민 21:9)는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뿔뿔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났다? 본 적도 없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완전히 몽개는 말 아냐? 이거! 창조주 하나님이지라면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꼭 인간의 이성 내에서만 활동하란 말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19.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가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다(34). 다음 구절이 대표적인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을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시 89:4)’ ‘여호와와 맹세하고 번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시 110:4)’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치욕적으로 ‘들려야 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니 유대인들이 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빛되신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며 그러면 알게 되리라는 뜻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메시아가 영원히 다스린다는 말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메시아왕국은 너무나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었기에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일시적이다.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다.

20. 사도 요한의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37)’ 예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메시아임을 증거하여도 유대인들이 끝내 믿지 아니한 것은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었다(38-41).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믿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만함과 형식적인 종교에 집착한 탓일 뿐이다. 그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43절에서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말한다. 깨달은 일부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21.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데 왜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47)고 말씀하시는 건가? 비슷한 예를 든다면?

입학시험은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한 시험이다.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떨어뜨리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고후 2:15-16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라는 향기는 하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어떤 이에게는 죽음의 향기라는 것이다. 결국 향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맡는 사람에게 달린 문제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 뿐이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받을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3 장

1.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 유언을 남긴 셈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두 번째 유언 즉 행 1:8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다. 그러면 첫 번째 유언은 여기 13장부터 17장까지인 셈인데 이 첫 유언의 핵심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닥쳐올 무서운 시련들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은 평생 이것을 그의 좌우명으로 삼고 가르쳤음.

서로 사랑하라(34)

2.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시도록 예언되어 있었다. 언제?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별칭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 사랑한다는 말만큼 아전인수격으로 함부로 쓰이는 말은 잘 없을 것이다. 이혼하면서 남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진다’는 말이나 결혼을 승낙하지 않는 일가쪽을 몰살시키고 잡힌 경찰도 왜 그랬느냐는 질문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이런 예는 무수히 찾아 볼 수 있다. 사랑도 골라가면서 받아야 한다. 이런 사랑은 결코 받아서는 안될 사랑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하는 ‘사랑한다’는 고백은 50%만 믿으라는 충고도 있다. 상당한 진리가 담긴 충고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 고백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말해 보자.

자기 희생(섬김, 자기를 낮춤)이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4.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동안 제자들은 안절부절 했을 것이다. 특히 유다는 어땠을까?

아마 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5. 발을 씻기는 일은 매우 천한 일로 여겨져서 히브리 노예들조차 하기 싫어해서 이방인 노예들이 맡았던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 사건을 본따서 흔히 세족식이라는 것을 하는 모양이다. 여러분이 발을 씻기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만 쓰시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구 등은 전부 오답. 그냥 친구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 내 밑에 있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썼으면 정답이다.

6. 여기에서도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을 이 사건에서 지적해 보자.

다른 제자들은 별 말이 없는데 베드로 혼자 거절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거절해서 될 일은 아니긴 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주제파악을 그 만큼 잘하고 있다는 뜻일 것. 다른 제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 있었던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다고 할까?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고 감격하는 사람과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 같은 것

7.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베드로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일까?

‘상관’의 우리말 뜻은 ‘서로의 관계’지만 원어의 뜻은 ‘높은 사람의 전리품, 재물 혹은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장의 뜻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이다.

8. 여러분들은 목욕을 해야 합니까? 발만 씻으면 됩니까?

목욕: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목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믿음이 없어서 목욕이라고 답했으면 정답. 믿음이 있음에도 목욕이라고 했으면 오답.

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지만 본의와 달리 실수도 더러 하는 사람은 정답.

9.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기시는 의미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비단 발을 씻기신 일 뿐만이 아니다. 배운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나중에 다시 기억하고, 깨닫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심(7:39, 14:26, 16:13)

10.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기시는 의미를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의미)

1) 서로 섬기라(14):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은 아무 감동이 없으나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2) 온 몸을 씻어도 발은 자주 씻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성화되어 가야 한다.

11.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17)’에서 ‘이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행하란 말인가?

누가 높고 낮은 것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

12. 감사할 간(姦)자는 여자가 셋이 모여 있다. 이처럼 한자어 중에는 뜻이 별로 좋지 못한 글자에 女(여자)가 들어간 것이 많다. 옛날 사람들은 여자를 대단히 나쁘게 생각한 모양이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글자를 바꾸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 남자 셋을 모아 못난 못 자를 만든다면 가... 각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체의 어느 부분을 나쁜 의미로 사용했을까?

발뒤꿈치 (야곱)

13.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부인(아마 오진일 거야,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두루 다님), 반항(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병이...), 좌절(세상을 저주함)의 변화를 겪는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병을 더욱 악화시켜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취한 태도는 이와 영 판판이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말을 고르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1)

14.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대단히 귀여웠던 모양이다. 가슴에 기대어 누운 채 예수님께 질문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 제자는 누구일까? 참고로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요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글에는 쓰지 않았다.

15.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자가 그(나를 팔 자)니라'고 하시면서 유다에게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시면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했음에도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국어 실력이 모자라는 것인가? 아니면?

엄청난 일을 위낙 태연하게 말씀하시니 끝이 들지 않았을지도: 마음에 없는 말은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들은 대로 아는 수도 있지만 아는 대로 들리는 경우도 있다.

16. 나중에 되어지는 일이지만 유다가 예수를 팔고 예수님은 잡혀 갔을 때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다. 어쩌면 자신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을 느끼며 이제는 자신들이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문득 '아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지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도록 예수님께서 취하고 계시는 조치는?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심(19)

17. 베드로는 결코 훌륭한 학생이 아니었다. 다음에 제시한 구절을 학교 교실이나 학교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해보자.

1) 6-8: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2) 24: 곤란한 것은 직접 질문하지 않고 남을 시켰다

3) 34 ↔ 36: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보다는 서론(내가 이제 가고 없을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니까(36)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잘 외우는 학생과 같다.

4) 37: 공부를 잘 하지도 못하면서 떠돌고 나서기만 잘 한다.

18.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과 뜻이 통하는 말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18)

19. 아이들에게 관심과 정성을 많이 쏟는 선생님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학생을 만나면 괴로움과 갈등을 심하게 느낀다. 그저 월급만 생각하는 선생님은 갈등도 적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온 정성을 쏟은 제자 중에서 배신자가 나온다는 사실과 그 배신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심령에 민망(21)하여

20. 유다가 만찬석상에서 빠져나가면 이제 그 다음 일은 치욕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었다고 하시는가(31)?

오랜 세월동안 예언되었던 인류 구속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므로 (이제 완성이나 다름없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저주와 수난으로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보고 있다.

21. 폴란드의 소설가 헨키비치가 쓴 소설의 제목(Domine quo vadis)이 본문에 있다. 영화로 더 유명해진 이 소설의 한국판 이름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36)

22.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일까 아닐까?

진심이다. 그러나 능력부족이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자신의 열정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진심어린 열정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물론 후자를 더 중요시해야겠지만.

요한복음 14 장

1.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3장 끝부분에서 찾는다면?

예수만 믿고 따라다녔는데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니.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데, 어찌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속에서 희망에 부풀었었는데 돌아가신다?

2. 그럼에도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거할 곳도 많고 가는 길도 알게 될 것이니까.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다. 현실에 몰입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현실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내세가 없는 사람은 죽음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현실도 두렵다.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실을 사랑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이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쌓은 모래성을 버려두고 떠나듯이, 배우가 그렇게도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던 무대를 떠나듯이 떠나야 할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본향이 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그네 길을 걷는 것이다.

3.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진지하고 깊이가 있다. 그러나 얼핏보면 동문서답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에 제자들의 질문은 육적인 것(지상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4. 천국에 갔다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런 이야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많고. 주로 이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었는데 서양 사람이 말하는 천국은 발달된 미래의 도시를 설명하는 것 같고(필시 콜레) 한국인이 갔다온 천국은 마치 전원의 목가적 풍경이었다. 천국의 다양성이라기보다는 자기 주관적인 면이 더 많아 보인다. 각설하고 천국을 그런 장소의 개념으로 파악하면 도마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본문에 나타난 ‘처소’나 ‘길’을 단순한 장소의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 네 구절을 찾으시오.

아버지께로 감(6, 12, 28), 내가 곧 길(6),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20), 아버지께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실 것(23)

가령, ‘처소’나 ‘길’을 장소의 개념이나 도로로 생각하면 도마와 비슷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아버지와 함께’에 주안점이 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길’도 도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무엇인가를 얻기 바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가 내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다. 그저 그가 좋아서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5.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처소를 아직도 다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일까? (얼마나 큰 집을 짓길래 아직도 미완성일까? 하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갈 집이라면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 그건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닌가?) 20절을 이용하여 답하시오.

그 처소는 완전한 교회를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벽돌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그 교회 말이다.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가’ 아직 완전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너무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20절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0-22)’

6. 도마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남긴 말은 전부 화끈하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11:16)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놓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20:25)고 소리질렀던 사람이다. 화끈하다 할까? 좌우간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사람인데 본문에 남긴 한 마디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이성적, 지성적, 야성적: 도마에 관한 내용이 다른 곳보다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요한의 성격과 도마가 닮아서 더 친했을까도 모른다. 이성적인 면이.

7. 제자들이 계속해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원인을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개의 표현에서 찾으면 무엇인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7, 9), 믿지 않았다(1, 11, 29)

8. 다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내용이다. “내가 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간다고 아주 가냐? 너희들과 함께 거할 곳을 준비해 놓고 다시 오마. 꼭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찾아올 수 있는 길도 알려줄게. 그리고 내가 없는 사이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거야.”

1) 수업 도중에 내용과 관계가 없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학생은 누구인가?

빌립: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2) 제일 똑똑한 질문을 한 학생은?

도마: 가르쳐주려면 좀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 눈높이 교육도 몰라요?

3)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셨다. 왜?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퍼부어도 휘말리지 않고 차근차근 마지막 수업을 이끌어 가셨다. 질문하는 학생들의 말을 막지 않고도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하셨다. 더구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4)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걱정스러운 제자는 누구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빌립: 대담을 가장 길게 해 주셨다. 어쩌면 알지도 못한 채 질문도 안 하고 암전하게 있는 다른 제자들이 더 염려스러웠을지도 모른다. 조용하게 앉아서 잘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앉아 있는 학생이 대단히 많다. 특히 여학생들은 더욱 그렇다. 나중에 속았다고 느끼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쳐서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

9. 빌립의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질문인지도 모른다. 동시에 가장 문제가 많은 질문이기도 하다. 이유는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지성적인 것)을 입으로 알려는 것(감각적인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이다. 가령, “야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는데 먹어보아야 알겠다고 우기면 어떡하지? 엄마의 사랑은 느끼는 것이지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아이의 어거지와 같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보는 것이 아니라 _____ 것이다.

믿는(10, 11, 14) 믿어야 보인다. 눈으로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이는 것이다. 믿지 않으려고 하면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 병을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는데 부부 사이에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것이다. 그 후에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의 질문에 믿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홈페이지 '작은 글'에서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10. 천국은 輝煌燦爛(휘황찬란)하고 아름답다던데 학교도 없지만 오락실도 없을 테니 좀 심심하겠다. 천국에서 우리는 밥맛 찬양만 한다면 목이 아프지 않을까? 노래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면... 지금 시내 모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선생님은 옛날 총각 시절에 특하면 이랬다. “난 천국 안 갈거야. 거기 재미가 없을 것 같애. 전부 암전하고 착한 아이들만 있으면 재미 없을 거야.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놈들이 있어야 재미도 있을 것 아냐?” 과연 그럴까? 천국을 현실 세계처럼 인식하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곳이다. 끝없는 기쁨과 희열이 영속적인 곳. 우리의 인식능력을 뛰어넘는 그곳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대로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아는가? 도대체 어느 구절을 읽어놓고 이런 사실을 늘어놓는 것일까?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어렵듯이 짐작할 만한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20절: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되어 존재하는 것.

11. 세상 임금이 와서 나를 잡아다가 심문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겠지만 그래도 세상 임금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실제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박혀서 돌아가셨는데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옳은가? 옳다면 어떻게?

옳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결코 빌라도의 의지가 아니다: 결보기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펴보지 못하고 세상의 임금에게 잡혀서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세상 임금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31).

12.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제자들이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제자들이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시는 지, 하나님(아버지)이 누구신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가는 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사람이 개척하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원래는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성경 속에 그 길이 있다. 성경공부를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는 법이다.

13. 서양 사람들은 기도를 마칠 때 ‘in the name of Jesus’라는 표현이 없다. 한국만 그런지 과문(寡聞)한 탓에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표현을 누가 시작했는지 참 감사하다. 어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를 마치도록 했을까?

13, 14: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얻고, 반드시 이룬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행 4:12)’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는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분이 기뻐하시고 그 분이 제시하신 방법으로만 그 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독생자를 낳고 낳은 이 땅에 보내셔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 예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신 후에도 제자들이 자신처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다. 제자들이 이 땅

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13장 말씀에 따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것을 14장에서는 무슨 말로 표현하고 계시는가?

민음(1, 11, 29)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도 바로 나중에 일이 이루어진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29)이라고 하셨다.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는다(27,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참된 평안은 말씀을 기억(26)하고 그것을 믿는데서 가능한 것이다.

15. 훌륭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부교역자를 떠나보내면서 이런 인사를 했다. “가시는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어서 붙들어 두고 싶지만 이곳을 떠나서 더 큰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냅니다. 개인적으로는 결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사이에 많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붙들어 두어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다. 어느 본문처럼?

28,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가는 것이 가야 하는 그 분을 위함이고, 동시에 떠나보내야 하는 제자들을 위함이고, 나아가 믿는 우리를 위함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성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함이다. 헤어지기 못내 아쉽지만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이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속으로 눈물을 삼킬 지라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를 서로 이야기해 보자.

16.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찾아가신 분이시다. 즉, 자신이 일을 해야 할 시기에는 이렇게 많은 말씀(13-16장)을 하시는 분이 심문을 받을 때에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을 아니하셨다(사53:7). 왜 이렇게 모습이 다를까?

때를 잘 아셨다(30) 지금은 자신이 일을 해야 할 때지만 그 때는 세상 임금의 때인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고,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다.

옛날에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 했지만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다못해 헛소리라도 열심히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헛소리가 사람의 관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가! 그러면서 차츰 차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요령도 배우는 것이다. 때로는 무게 있는 말도 가벼운 말에 실을 줄도 알고, 가벼운 말과 무거운 말을 다 잘 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17. 계명을 지키라는 부탁을 여러 번 하셨다. 몇 절인가? 그리고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일까?

15, 21, 23, 24, 서로 사랑하라(13:34-35, 15:12) 본문은 13:1에서부터 시작한 사랑이야기의 일부분이다.

18.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를 본문에서 두 가지 찾는다면 무엇인가?

고아와 같이 버려둘 수 없는 안타까움(18)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26)

요한복음 15 장

1.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신단다. 큰 일 났다. 빨리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잘리기 전에 빨리 열매를 맺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뛰어다니며 안달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잘 붙어있으면 된다. 열매를 맺도록 거름을 주고 전지를 하는 것은 농부의 몫이다. 가지야 줄기에 잘 붙어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 것이다(4절의 逆) 계속되는 예수님의 당부는 '내 안에 거하라'이다. 열매, 즉, 기도, 봉사, 전도, 교육... 이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으라고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열매는 절로 맺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더라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이다. 스스로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2. 예수에게 붙어 있음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는가? 아니다. 다만 붙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줄기와 관계가 없는 가지가 있을 뿐이다. 병든 가지나 벌레가 기생하고 있는 가지, 죽은 가지는 제대로 붙어 있는 가지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곧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6):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실상은 믿지 않는 자,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를 팔 내 거절하는 사람들,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다. 열매를 잘못 이해해서 열매가 없으니 나는 죽은 가지인가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자체가 바로 훌륭한 열매이다.

3. 천국의 원리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더 잘 맺게 하는 것이 아닌가? 천국의 원리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 25:29)'는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풍성하지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추호의 용서도 자비도 없는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길을 만들었고, 그것도 완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는데 그것마저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무슨 자비를 더 베풀라는 말인가?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것은 곧 전지(剪枝)를 의미한다. 포도나무에 열매를 제대로 맺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지하지 않는 가지에는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시련들은 바로 이 전지작업임을 알고 감사드리자. 이런 시련없이 제대로 된 인간이 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4. 잘라낸 포도나무의 가지를 보셨나요?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잘라내야 하는 것이니 잘려진 그 자체로 나무랄 수는 없다. 잘라낸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쓸까?

도대체 쓸 데가 없다. 그냥 쓰레기처럼 사를 뿐이다: 여기에 사른다는 말은 썰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썰감으로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잘 타지도 않을뿐더러 묶어놓으면 부피만 클 뿐이다. 열매를 많이 맺을 거냐? 아니면 불에 탈테냐? 선택은 이것밖에 없다.

5. ~안에 거하라는 표현이 몇 번인가?

4, 5, 6, 7, 9, 10: 거듭 얘기지만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보고 '열매를 맺어라'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6.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격적이란 기계적이란 것과 달라서 항상 똑같은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분이 좋으면 안 줄 것도 주고 적게 줄 것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더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고 (눅 11:13), 안 줄 수도 있는 것이다(고후 12:7-9).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요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7):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가능해진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이다. 기도는 결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우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노라면 서서히 내가 변해 가는 것이다.

7.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보다 '내게 붙어 있으라'는 것이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1점), 나를 사랑하는 것 혹은, 계명을 지키는 것(2점), 서로 사랑하는 것(3점: 12절) (점수에 차등을 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성의 차이이다)

8.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 본문에서 찾아보자.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찾으려면 가능할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9-10).

9.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남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을 받았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목숨까지 바쳤다.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는가? 자라면서 친구나 부모, 선생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9, 12-13).

1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나 지옥불에 떨어질까 두려워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이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이다.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섬기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11.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평안'이었다. 그러면 15장에서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기쁨(11): 예수께서 주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이 누리는 그 기쁨이다. 물질이나 명예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풍성한 기쁨 말이다. 진정한 기쁨은 이 땅의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땅에서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12.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다. 열심히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고 열심히 사는 사람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자신의 노력보다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도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와 마찬가지로(눅 12:16-21) 잘 나갈 때는 정말 잘 나가지만 허물어질 때는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이다.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회의가 닥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들을 자격도 없다. 이것은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라는 것이다.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단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친구가 있나요?

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실천에 옮겨버렸다.

14.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치 호수에 그려지는 동심원처럼 번지는 이런 사랑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9).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다.

15. 3절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언제 무슨 말을 하셨는가?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고 있는데... (요 13: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아도 좋겠고, 좀 더 넓게 본다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니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16.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다가도 때로는 그들과 맞서서 싸우거나 배척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다가도 때로는 도무지 같은 종족이 아닌 것처럼 갈라서기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19): 이 세상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매사에 원수처럼 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완전하게 동화되지 않는 별종이다.

17.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덧붙인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핍박의 유무로, 혹은 핍박의 강도와 관련지어 풀이해 보자.

주인이 핍박을 받으니 종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유무의 문제)

너희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내가 받은 만큼은 아니다. (강도의 문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18.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떠나가시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또 하나의 유언이다. 15장에만 몇 번 나올까?

10 번

19.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나 제자들에게 온갖 핍박을 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21):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며 온갖 불행의 시작이다.

20. 성령의 사역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26):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믿는 자는 성령 받은 자이다.

요한복음 16 장

1. 병을 미리 예방하는 의사나 병이 깊어지기 전에 고쳐버리는 의사보다 병이 깊어져서 죽을 때가 다 된 병을 고친 의사를 명의라고 한다. 아예 병이 들지 않게 예방하는 의사가 진짜 명의라고 해야 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물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약점 중 하나가 아닐까?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을 의사에 비유하면 어떤 의사에 해당이 되는가?

병을 예방하는 의사: 나중에 닥쳐올 어려운 때에 실족치 않게 미리 일러두는 것(1, 4)

2.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어려운 일들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있다.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나타내는 단어를 하나만 찾는다면?

출회(2점): 유대교에서 쫓겨남을 말한다. 중세의 파문을 생각해 보라. 교황이 왕을 파문하자 왕이 눈발에 사흘 밤낮을 쫓겨났야 빌었다는 카뮈사의 굴욕을 생각해 보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 파문을 당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바로 죽음 그 자체인 셈이다.

죽이는 것(2점): 여기서는 출회가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죽이는 것'은 몸의 죽음만 의미하지만 '출회'는 영혼의 죽음까지 포함한다.

3.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를 모조리 다 죽이려고 열심을 내었다. 그렇게 악한 짓을 왜 했을까?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보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2):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3):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열심만 많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대형 범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무식하면서 열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 무식하면 차라리 열정도 없어야 하는데...

4. 13, 14장에서는 비록 초점이 안 맞는 질문이긴 해도 베드로, 도마, 빌립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 잘 듣고 있으면 됐지 질문 안 하는 것도 잘못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말이다: 조용하게 듣고 있다고 해서 다 알아들은 것이 아니다. 질문 공세에 시달리던 아인슈타인이 일본에서 강연을 하고서는 아무 질문이 없자 과연 '일본인 학자는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단다. 칭찬을 했더니, 대답이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요" 그랬단다?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그것을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란다. 질문하지 않고 눈만 껌뻑이는 학생은 결코 훌륭한 학생이 아니다.

5. "내가 간다고 너희들이 걱정이 많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단다. 어차피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단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면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며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대강 이런 내용인데 제자들을 염려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지금 이런 말을 하시며 제자들을 염려하실 상황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을 더 염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십자가의 죽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 달라고 기도까지 한 그 두려운 고통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근심을 염려하고 계시다니...

6.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14:26).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신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책망이다. 마찬가지로 '죄'와 '의'와 '심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의'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당연히 따르는 결과가 '심판'이다. 혹은 하나님은 '의'이며 그 의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7.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을 한 분이라고 믿는다. 세 분이 계시는 데도 굳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면서 우리는 믿고 있다.

그게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하나님의 것이 동시에 예수님의 것(15): 성령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실 것(13)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나 성령의 말씀을 들으나 한가지다.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세 분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성령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같은 말을 하신다(13). 즉 하나님의 뜻에서 전혀 벗어남이 없다.

8.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면 안 되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면 될텐데... 아, 참 그것도 소용 없는 짓이다. 이미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못 알아듣는 걸 어떡하나? 십자가의 죽음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고통: 범죄한 아담에게 벌을 내릴 때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준 것은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 자신의 고통임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해산의 수고를 다 한 사람이다(갈4:19).

9.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우리는 곡하고 애통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우리는 곡하고 애통해야 할 때가 있다. 모든 일에 이렇게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뛰어야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가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싶으면 즉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 믿는 사람끼리만 폴폴 뭉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산통은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평균 6시간 정도 계속된다고 한다. 이것이 두려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도 가끔은 있는 모양이다. 물론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고도 또 아이를 낳는 것은 이 고통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잊을 수가 있을까?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고통은 잠깐이지만(여자분들께는 죄송!) 이 기쁨은 평생 누리는 것이다(산통보다 더 큰 아픔을 주는 자식도 있기는 있더라만). 이 기쁨을 알기에 번연히 고통스러움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다. 어쩌면 그런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자세가 바로 몸과 마음이 긴 강한 증거이다.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아픔을 스스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그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제자들에게 잠깐의 근심이 있겠지만 그 후에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근심과 기쁨은 우리의 삶에도 있는 것이다.

11. 23절의 '묻지 아니하리라'는 난외주에 보면 '구하지 아니하리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영어의 ask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하면 문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보자.

묻다: 지금은 설명을 해 주어도 못 알아듣는데 그 날에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구하다: 그 날에는 내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26).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만 내 이름(나는 수단)으로 구하라.

12.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셨다(26). 예수님도 안 하시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천주교의 신부: 죄를 고백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하라는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엡 3: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 10:19-20)

각종 사이비 교주들: 천주교의 신부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행하고 있지만 사이비 교주들은 아예 자신이 하나님 노릇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13. 이제는 믿는다는 고백(30)에 이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고하신다(31). 그렇다면 제자들이 진짜 예수의 말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예수님의 반응을 보아 믿은 것은 틀림없다. 다만 그로 인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내다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도 비록 그렇게 자신을 버려두고 모두가 흩어질 때가 온다 해도 용기와 평안을 잃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다.

14.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 굳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신 이유는 비유가 상반된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선 한 가지는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인지 25절과 29절을 보고 생각해 보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감추는 역할: 아는 사람은 아주 선명하게 알아듣도록 하는 반면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비유이다.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감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15.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우상 숭배자를 싹 쓸어버린 엘리야도 이세벨의 협박에 쫓겨 광야로 도망갔을 때 자기만 홀로 남은 줄 알았지만(왕상19:10)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와 또 다른 사명을 주셨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연약한 우리야 그냥 버려두면 말해 무엇하겠는가? 엘리야에게는 쓰러진 그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치료를 하셨지만 우

리를 위해서는 미리 예방주사를 두 대나 주셨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홀로 남은 느낌이 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병이 들었을 때를 대비한 하나님의 치료약은 무엇인가?

32절과 33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7 장

1.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과연 예수님다운 기도를 하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비교하면서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한 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다: 예수님의 기도 자세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눈을 뜨고 하는 것(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라)인데 눈을 뜬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의미한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

2.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독단적이거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딴 것이다. 가령,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라는 8절 말씀이 한 예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다른 예를 찾아보자.

가르친 말씀들(8), 소유물(6,9), 존재양식(11,21,22,23), 소속(14,16), 파송(18), 거룩하게 함(19), 영화롭게 함(1,6,22,23), 동거함(24), 사랑의 교제(23,25-26)

3. 이 기도를 내용을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10마지를 전반부로 11-19을 중반부로 20-26을 후반부로 볼 수 있겠다. 각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각각 찾아보자.(가능하다면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

전반부: 영화(榮華) 십자가의 죽음(1), 구원의 주관자(1,4), 성부와 성자의 관계(5),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10) 등을 의미함

중반부: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11,13,14,15), 구원받을 백성이 섞여 있는 곳(18)

후반부: 알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을 아는 것이다.

호세아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실이 아니라 비유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더욱 기쁨의 삶을 산다. 하박국이 부른 '무화과나무 열매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4.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무엇을 영생이라고 하는가? 왜 그럴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3)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지 아니하고 지옥에 거주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한다. 먹고 묵숨만 부지하는 것을 '연명' 혹은 '생존'이라 말하고 즐기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삶'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삶이란 단순한 묵숨부지가 아니다. 안다는 것은 인격적 교제를 말한다. 창 4:1은 직역하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았더니 하와가 잉태한지라' 이렇게 된다.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곧 영생이다.

5. 가령, 당시의 로마군인들이나 지배층이 이 기도를 들었다면 가장 가소로운 표현이 무엇일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나)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2) 십자가 처형으로 죽을 죄인이 웃기까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알기에 그렇게 모욕을 하고 침을 뱉었다.

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3:16)' 이 구절의 세상과 6절의 세상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3장의 세상은 6절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과 같다. 참고로 9절과 14-16절을 보면 '세상'과 '내게 주신 자'를 분간하고 있다. 영생은 값싸게 모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유를 따지지 말고 이것을 믿고 받은 자는 감사를 드릴 뿐이다. 쓸데없이 누구는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따지거나 생각지 말 것이다.

7.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요구하신다. 부부에게는 둘이면서 하나이기를 원하시며, 성도들에게는 수 없이 많은 개별적인 존재임에도 하나이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지상의 수 없이 많은 개별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이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와 하나님까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11, 22(1절):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심

21, 23(2절):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땅에서 하나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기도하신다. 낙원에서 추방되기 전에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됨'을 뜻한다.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며 즉시 죽은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그 이후 몇 백년을 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이전처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낙원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최종 바람이다(엡 1:10).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8. 제자들이 언제 어떻게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던 말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영화이다.

9.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만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2)였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권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런 권세를 왜, 어떻게 받으셨는가?

만민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받은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얻은 것이다: 만민 위에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만민을 섬기는 권세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 있는 자는 섬기는 자다.

10.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충만한 기쁨(13): 소유에서 오는 기쁨도 크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줌으로 얻는 기쁨이다.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주자! 안 되면 주는 연습이라도 하자!

세상의 미움(14):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인한 미움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이웃을 섬기지 못해서 받는 미움을 이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대부분의 미움은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직장과 사회, 가정에서 순교자적인 자세로 살아야 한다.

11.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말(한 단어)은 무엇일까?

거룩(17):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말한다. 겉으로 드러난 느릿느릿하고 신성한 듯, 또는 점잖고 우아한 자세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삶의 자세를 가리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다.

12.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19)고 하신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의 거룩은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13. 장차 우리의 천국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생명 강가에서 12가지 생명 실과를 먹으며 흰옷을 입고 열두 대문과 온갖 보석으로 꾸민 대낮같이 밝은 대궐에서 근심 걱정없이 황금 길을 걸으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사는 것일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이 본문에 있다면?

24절, 예수가(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예수(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이다. 동참하는 것은 곧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예수가 지옥에 계시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고 루터가 말했단다. 원래 루터는 표현이 과격하다. 그의 말은 지옥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의미다. 즉 예수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다. 그곳에서 그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내 애인이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의 인생을 내게 맡기겠다는 고백이었다. 그 이상의 큰 선물은 있을 수 없다.

요한복음 18 장

1. 예수께서 잡히시기를 바라고 고의적으로 한 일이 있다면?
유다가 잘 아는 장소에서 기다림(2)
어두워서 잘 알아볼 수 없을 때 스스로 자신을 밝힘(5, 8)
2.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은 누구누구인가?
군대와 하속(3, 12)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까지 따라온 것은 아니다. 읽기 훈련 삼아 이런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다.
3. “너희가 찾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그러면 순순히 포박에 응하겠다.” 이와 비슷한 표현은 영화에도 가끔 나오는 것 같다. 주인공이 스스로 잡혀가고 수난을 겪고 또 탈출에 성공하고... 주인공의 용감함이나 멋스러움을 보여주는 장면인 셈이다. 예수님(8)도 그렇게 멋있는 본으로 묘사하려는 의도인가?
말씀을 응하게 하려하심(4, 9)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11). 결코 멋있는 주인공이 되려고 멋있는 대사를 남긴 것이 아니다.
4. 베드로가 하필이면 대제사장의 종을 베었을까? 좀 더 우두머리를 치지 않고?
아마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체포하는 자였을 것이다. 이 무리의 주관자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나 그 일을 앞서서 행하는 자는 그의 부관쯤 되는 종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단순한 종의 개념과는 좀 다르게 보아야 한다. 대제사장의 대리인쯤 되는 사람이다.
5.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와 위세를 보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나마 베드로의 용기가 다소 위안을 준다. 반항이라도 해보아야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나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그 용기조차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아니했다. 혈기나 순간적인 충동에 따른 열심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휘둘러보아야 한다고? 이 본문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제자들을 책망하려는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각설하고 이왕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다면 목을 찌르던가 해야지 하필이면 귀야?
급소를 쳤는데 말고가 피하는 바람에: 그럴 수도 있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은 정상적인 몸을 지닌 사람이었어야 했다(레21:17-21). 만약 귀가 잘린다면 지금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한창 잘 나가는 말고의 인생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셈이다.
6. 예수면 예수지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예수란 이름이 더러 있었던 모양이다. 분간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멸시하는 의미가 있는 듯: 촌놈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다(1:45). 십자가라는 말이 입에 담기도 거북스런 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뀐 것처럼 나사렛 예수도 원래는 그러하였지만 이제는 자랑스런 표현으로 바뀌었다.
7.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11). 숙명과 어떻게 다른가?
숙명은 일종의 체념이며 피동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삶이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고난의 길을 엄숙하고도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8.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이 왜 대제사장에게 먼저 가지 않고 대제사장의 장인에게 먼저 갔을까? 그 때도 처가딸이 섰는가?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 총독에 의해서 면직되고 사위인 가야바가 임명되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의 심정적 대제사장은 안나스인 셈이었고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9. 예수의 제자는 다 명칭하고 신분이 낮은 줄 알았는데 당시 최고 권력자와 아는 사람이 있었다니? 이게 누구일까?
요한: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두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과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이다. 결국 요한은 본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표현하고 있다. 이 글을 쓸 때쯤 요한은 아주 늙었다. 늙은 노사도가 글을 쓰면서 자신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자세를 어떻게 이해할까? 겸손?
10. 베드로가 실수를 했다. 들키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할 것이 문지키는 사람과 불 곁에 있는 사람이다. 문지키는 사람은 평소에도 사람을 자세히 살피기 때문이고 불 곁에 있으면 밤이라도 얼굴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장면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보다 먼저 떠올라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요 13:38: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11. 선생님이나 부모가 실수를 했을 때 따지고 들면 실수한 것은 접어두고 '건방지다, 혹은 대어든다'고 꼬투리를 잡게 마련이다. 그럴 경우에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게 지혜롭게 실수를 지적해야 한다. 본문에도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그런 꼬투리를 잡는 예가 있다면?

22: 대제사장에게 대한 태도를 문제 삼는 하속: 대제사장은 그냥 품을 한번 잡아본 셈이다. 어차피 취조 해봐야 별 것 없을 테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충성스런 하속이 예수를 쳤는데 이 죄를 어이할꼬? 충성도 봐가면서 해야지 아무데나 충성하다니...

12. 이방인(빌라도)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빌라도의 궁정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들은 유월절을 소중히 여겼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다. 어째서?

유월절의 진짜 주인공은 그들이 배척하는 예수이기 때문이다: 유월절 행사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데서 유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양의 붉은 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예수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 것이다.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어린 양을 배척하면서 유월절 식사는 그렇게 소중하게 바라고 있다. 어쨌거나 그들이 유월절 양을 잡는 일을 도운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용하셨을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도운 것은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요, 고기를 먹는 것이다.

13. 빌라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역대 총독들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하여 아무도 황제의 흉상이나 초상이 그려진 깃발을 예루살렘에 들여오지 않았다. 빌라도가 밤에 몰래 황제의 흉상을 예루살렘에 들여오는 만행을 저지르자 유대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항거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을 살육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다가 철수한 적이 있었고, 성전의 돈을 강제로 빼앗다 시피하여 예루살렘의 수도공사를 강행하기도 한 폭군이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고발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분별력은 분명히 있는데 처리는 공정하지 못하다. 왜 그럴까?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일까? (실제로 빌라도가 이렇게 약해진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는 있었다)

민중의 폭동을 두려워함: 원래 총독의 임명은 황제의 권한이었지만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가 은둔생활을 하면서 권한을 심복 세자누스에게 맡겼는데 빌라도를 임명한 그 심복이 황제에게 처형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빌라도는 당시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다.

14.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은 적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약2:26)

15. 헤롯 안디바는 헤롯이 가졌던 왕의 칭호를 자신에게도 달라고 로마황제에게 청하였다가 추방당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에 가장 좋은 죄목이 무엇인가?

유대인의 왕: 그 점에 대해서 빌라도가 심문을 했고(33, 37) 예수가 인정을 했음에도(37) 빌라도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단지 철학자 정도로 인정한 셈이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라는 말을 가장 큰 죄목으로 여겼으니 로마의 충성된 신하들이었던 셈이다. 작은 억지는 더욱 더 큰 억지를 부른다.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다보니 자신들마저 민중 앞에 더 큰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16. 예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빌라도가 반역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는 유대 나라가 아니다.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더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9 장

1.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하려는 마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서(4-12) 1절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도록 군병들에게 내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채찍에 맞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유대인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여전히 빌라도는 예수의 처형을 원하고 있지 않다(4, 6, 8, 12). 그러나 이 채찍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몇 가닥의 가죽 끝에 나비 모양의 쇠불이나 뱀조각이 달려 있어서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이었다.

2. 군병들은 모처럼 신이 났을지 모른다. 오랜만에 놀이개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도 왕이란단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왕으로 대접을 해 줘야지. 그러면서 군병들이 어떻게 예수를 왕으로 대접했는가?
왕관(가시 면류관)을 씌움, 왕복(자색옷)을 입힘, 문안을 드림

3. 6-7에서 유대인의 말 중에 잘못이 있다면 무엇인가?

저희에게 법이 있지만 십자가에 못박는 법은 없다. 유대인들의 법에는 풀로 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거야?: 십자가 형벌은 로마인들이 페니키아인들에게 배운 것이다. 워낙 심한 고통을 주었기에 로마인들에게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으며 십자가란 단어조차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독해질 수가 있는가? 나 자신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던 날 나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나로 하여금 바르게 기도하며 바른 소원부터 가지게 하옵소서”

4. 10절에서 빌라도의 말에 틀린 점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소신껏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으므로 '놓을 권세가 있다'는 말은 틀렸다: 실천에 옮길 마음과 능력이 없으면 지식이 지식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등등 좋아 보이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말이 아니다. 아니, 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죄악이다.

5. 빌라도의 정당한 질문에 왜 예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대답하시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24, 28, 36): 이미 말했기 때문, 설명해도 빌라도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 등의 답이 나오겠지만 정답은 사 53:7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일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의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6. 1945년에 우리나라가 독립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독립이 아니었다. 일본의 통치를 그대로 받고 있었던 것이나 전배없었다. 일본에 충성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나라를 다스렸으니 말이다. 그래서 반민특위(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경찰의 수뇌부가 처벌대상이니 제대로 될 턱이 없었다. 결국 무산되고 오늘에 이른 것이 우리 사회가 원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질 낮은 사회가 된 원인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훗날 로마에서 독립하고 이런 반민특위를 구성한다면 꼭 잡혀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를 처형하라고 하면서 19:12, 19:15을 외친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협력하는 편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꼭 그렇지 않은 않았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려고 무리수를 두다보니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언제부터 로마에 그렇게 충성했던 말인가? 한 번 거짓을 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한번 무리수를 두면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7. 빌라도가 자신의 뜻에 반하여 예수를 처형하도록 내어준 것은 유대인들에게 굴복한 셈인데 죄패에 3개 국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서 엉뚱한 화풀이를 하고 있다. 죄패를 둘러싼 싸움에서는 빌라도가 이겼다. 죄패에 '자칭'이라는 말을 굳이 넣으려는 유대인과 넣지 않는 빌라도의 심리를 비교해 보자.

유대인들: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혼자 떠든 말에 지나지 않는다.

빌라도: 유대인의 왕이라도 처형할 수 있는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과시할 수 있으니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라면 더욱 좋다. 더구나 정당한 이유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치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나 조롱의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8.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좌우에 강도 둘을 함께 처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이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흉악범이었을 것이다.

예수도 이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려함

9. 군병들이 갑자기 회개했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니...(24)

군병들은 자신들의 그런 행위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시22:18) 그것을 이루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단지 자신들의 이익이나 욕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고 있음을 알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예정론'을 들먹이며 고민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며 열심히 사는 것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
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일 외에 또 다른 예정을 찾아서 해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10.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효도를 다 하지 못했다. 홀로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지 않고 집을 나
가서 속을 썩이더니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말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눅2:35)’
는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다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머니에게 십자가에
달린 채 마지막 효도를 하신 셈이다. 어떻게?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먼저 떠나면서 어머니를 모실 새 아들을 지정해 주신 셈이다: 마리아에게 다
른 아들이 있었음에도 이 제자가 예수의 모친을 모셨다. 그 일 때문에 이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순교할
때에도 죽을 수 없었다. 그 후에도 오래도록 살아남았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특별하고도 귀중한 기록
을 남길 수 있었다. 이 제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무엇일까? 다섯권의 성경을 기록
하였음 (18장의 9번 문제를 참고) 요한복음과 요한 일, 이, 삼서, 요한계시록이 그것이다.

11. 26절의 ‘아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자기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제자를 가리키는가?
제자: 모친과 제자에게 번갈아 하시는 말씀이므로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본다.

12. 예수님의 일과 군병들의 하는 짓은 전부가 성경에 예언된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은 스스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28) 반면에 군병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24) 자신이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갔으며 본문에서도 시 69:21 ‘저희가 쓸개를 나
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라는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인 것을 아시고 ‘목마르다’
하였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색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향한 예언(예시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
는 삶이었다(13:18, 15:25, 17:12, 18:9, 18:32, 19:36,37).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13.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남기신 한 마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1) 무엇을 다 이루었으
며 2) 언제부터 시작한 일인가?

1) 인류의 구원, 2)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본다면 ‘태초부터’라고 해도 좋지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점에
서 본다면 ‘아담의 범죄부터’라고 하는 답이 가장 좋겠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
터 작정된 일이었다. 예수께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드디어 다 이루어
졌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뿐이다.

14. 다른 두 강도는 다리뼈를 펴어야 할 정도로 살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다. 육체적으로도
아주 약한 상태였던 모양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끔 화가들의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잘
난 분은 결코 아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뼈가 펴이지 않으리라는 예언은 어디에 있는가? 구약의 장
절이나 혹은 어떤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가?

출애굽기 12장, 혹은 유월절 사건: 출 12:46, 민 9:12의 기록은 유월절의 양을 잡는 내용이다. 이 유월절 양
은 곧 예수를 가리킨다. 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죽음에서 벗어난 그 사건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의 사건이다.

15.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앞의 세 책과는 다른 점이 있다. 단순한 예수님의 일대기가 아니다. 그래서 마
태, 마가, 누가복음은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은 제외시킨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권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누가는 기록 이유를 눅 1:3에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자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밝히고
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0:31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본문에서 찾아낸다면?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니라(35)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널리 읽혀지고 있을 때에 늦게 기록되었다. 말
하자면 다른 복음서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생각으로 기록하였다. 특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확신시키려는 의도로 기록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
졌음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16. 예수의 삶에서 가장 대접받은 때가 죽음 이후가 아닐까? 태어날 때는 마굿간이었고 살아생전에는 머
리 돌 곳도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장례를 치뤘었다. 아리마대 요셉
은 부자였고(마27:57) 니고데모는 권세 있는 자(요7:50-53)였으니 이렇게 대접을 잘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었고(사 53:9) 시체에 바를 몰약과 침향 백근(35kg)은 왕족의 장례에 쓰이는 정도의
양이었다고 한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 보자.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인정받으며 예수를 따랐고 이들은 심정으로는 제자지만 겉으로는 아닌 체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냈다. 즉 예수의 숨은 제자라고 해도 되겠다.

17. 영어 사전에 noise를 찾아보면 ‘시끄러운 소리’라는 뜻 외에 () 위대한 인물’이라는 풀이가 있는데
팔호 속에 알맞은 두 글자는 무엇일까? 영어 사전을 찾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본문에서 답을 찾
으세요.

자칭: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인데 유

대인들이 이런 영어를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죄패에 '자칭'이라는 말을 넣고 싶어 했을까?

면류관: 제왕의 정복에 갖추어 쓰던 관

박석: 넓고 얇게 뜯 뜯

깃: 각자의 몫

호다: 형표를 겹치고 성기께 꿰메다

은휘: 꺼리어 숨기고 피함

요한복음 20 장

1. 마리아는 대단한 여자다. 이른 새벽에 혼자서 무덤을 찾다니!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보면 혼자서 간 것은 아니다. 이 본문에서도 혼자 간 것이 아닌 증거가 있다면 무엇인가?

2절의 '우리': 유대인들은 죽음을 7일간 애도했다고 한다. 안식일이 지나자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애곡을 위해서 무덤을 찾았을 수도 있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았을 수도 있다. 이 일에 마리아가 주동이 되었거나 적극적으로 나섰다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구라도 강해진다. 새벽에 무덤을 찾을 수도 있다.

2. 그 다른 제자라는 표현이 네 번이나 나온다. 이름을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번거로운 표현을 반복할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려함: 이 글이 씌어질 때는 예수의 12제자들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다. 유일한 생존자인 셈이다. 그만큼 자신의 역할이 중대해졌음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겸손함이 위대해 보인다.

3. 두 제자가 달음질을 하는 장면에서 묘한 차이점이 보인다. 이것이 두 사람의 성격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베드로가 달리기에서는 뒤졌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앞섰다. 요한은 찬찬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성격이지만 베드로는 무조건 나서고 보는 성격이다. 이 두 성격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서로 다른 성격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21장 참고)

4. 당시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 하면서 시체를 도적해 갔다느니 예수가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사라졌다느니 하는 주장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본문은 은근하게 반박하고 있다. 어떻게?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나 수건을 풀어놓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을 것이다. 기절했다가 살아나도 마찬가지다.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목격한 자신들도 믿지 않았다.

5.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기사는 일반적인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씌어진 것이 아니다. 가령, 유대인이 픽션을 쓴다면 결코 이렇게 쓰지 않는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로 세우는 것: 여자는 사람의 수에 넣지도 않았으며 법정에서 결코 증인으로 삼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자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은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던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을 반증하고 있다.

6. 마리아가 살아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도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 너무나 변화된 모습 때문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마리아가 동산지기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아 외모상 화려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7. 예수께서 왜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마리아가 만지면 부정을 타서 하나님께 못 올라가는 걸까?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는데...(27)

'만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집착하다, 매달리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내게 집착하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뜻이다.

8.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전과 비교하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문을 닫아 두었는데 그냥 나타나심(21): 몸을 분명히 지니고 계심에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모습이다. 눅 24장에서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귀신인줄 알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생전을 달라고 해서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육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육을 지녔으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이 바로 부활한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9. 흥측한 어머니의 얼굴이 싫어서 어머니와 깊은 정을 나누지 못한 어떤 딸이 어머니의 흥측한 그 얼굴이 불길 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다 그렇게 되었음을 알고 어머니의 그 얼굴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얘기는 감동적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 중에서 그런 자랑스러운 흥측함을 가지신 분이 있는가?

예수님의 손발, 옆구리의 흉터가 바로 그것 아닌가? 바로 그 끔찍한 흉터를 보면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감격하며 감사할 날이 곧 올 것이다.

10. 예수님의 제자 파송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것과 같은 것이다.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죽음의 길이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이제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성도들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그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죽어야 할 곳이 가정이다. 죽을 각오로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 가정에서 먼저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회사와 이웃, 그리고 교회에서 죽을 각오로 성도와 이웃을 섬겨야 한다. 그것이 나와 내 이웃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부활) 방법이다.

11.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없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예루살렘을 진동하게도 하지만(행 22장) 때로는 아무 흔적도 없이 우리 속에 내재하여 계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구별하느라고 전자는 성령의 충만함이라 하고 후자는 성령의 내재 혹은 오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숨을 내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쓰

신 표현이기도 하다(창 2:7). 그 후에 또 누가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한국의 부흥사들이 마이크에 입을 대고 바람부는 소리(후~, 쉬이~)를 내며 '성령 받으라'고 외치기도 했다. 마치 자기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아니 마이크에 대고 불었으니 더 큰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

12. 23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인가?

성령을 받은 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의적인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말은 아니다.

13. 도마는 맺고 꿰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기도 어렵지만 한번 믿으면 확실하다. 신앙도 어정쩡한 자세보다는 이런 자세가 더 바람직해 보인다. 어쨌거나 다른 제자들에게 하는 그의 말은 수업 중에 엉뚱한 소리하는 아이를 꼭 닮았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게 된 이유는 물론 그의 성격 탓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모였을 때 함께 있지 않아서: 모임에 빠졌는데 하필 그 모임에 대형 사고가 나서 혼자 살아남는 경우도 있으니 빠진다고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빠질 데를 빠져야지. 부활하신 예수께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런 때에 혼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혼자 빠지지 않아야 한다.

14. 큰 소리는 있는 대로 다 쳤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 도마가 손을 내밀어 만졌을까? 만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와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든지!

무안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웠을 것이다: 만졌느냐 만지지 않았느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지지 않았을 것 같다. 하던 △△도 명석 팔아 놓으면 안 하는 게 사람의 심리니까. 이게 한국 속담이어서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다? 문제는 도마가 믿지 않았기에 한 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났으니 만져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항복을 했을 것이다.

15.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나타나 있다. 많은 예수님의 표적들 중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면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요한복음 21 장

1. 디베라 바다가 어디야?

헤롯 안티파(Herod Antipas) 왕이 AD 16-22년에 갈릴리 바다의 서쪽 연안에 당시 황제 디베로(Tiberius, 티베리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고 불렀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도 했다. 비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로 호칭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웠다(요 6:1). 이곳은 유명한 휴양지였으며, AD 70년 이후에는 랍비 교육의 중심지였다.

2. 베드로가 한 이 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는 참으로 나쁜 말이다. 왜?

그가 할 일은 사람을 낚는 일이다: 3년 동안 숙식을 함께 하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가르쳐 놓았더니 되레 제자리로 돌아가버렸다? 이런 허무한 일이...

3. 그들은 원래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6절의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단순히 우연으로 돌려버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왜 전문가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몇 년간 예수님을 따라 다니느라고 감각을 잃어버렸을까?

문제는 그들의 할 일이 그것이 아님을 망각한 것을 깨우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물을 배의 오른 편에 던지느냐 왼편에 던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니다. 출렁거리는 바다에다가, 돌아다니는 고기들을 상대로 오른편 왼편이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4.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임무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깨우치시려는 것이지 고기잡는 요령을 가르치려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가 아니다. 성경의 의도와 상관없이 문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이런 것을 *Biblicism*, 성경주의라고 한다. 결코 좋은 말이 아니다).

5. 사람이 다 똑같으면 함께 어울리는 재미가 없다. 한 사람이 사색파라면 다른 사람은 행동파가 되어야 서로 보완이 된다. 동업자의 생각이 똑같다면 동업을 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특히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인가?

요한과 베드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는 것은 요한이었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생각이 깊었다. 행동을 먼저 개시하는 것은 베드로였다. 옷을 벗지도 않고 물 속으로 뛰어드는 그의 행동과 노를 저어서 그물을 끌고 오는 제자들과 비교해 보라. 그렇다고 다 그러면 안 된다.

6. 잡은 고기가 무려 153마리였다. 이 숫자만으로 놀랄 일은 아니다. 고기가 얼마만한 크기냐는 것까지 따져야 놀라든지 말든지 할 일이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에서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고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숫자를 어디에서 또 본 적이 있는가?

모나미 볼펜: 이 회사를 만드신 분이 이 사건을 생각하고 볼펜팍지에다 특별한 의도없이 153이라고 썼단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나라 필기구의 대표주자가 되었다는데...

7. 부활하신 예수님이 겨우 이런 일이나 하시다니? 마땅히 할 일을 버려두고 고기나 잡으러 간 제자들이나 그들을 불러서 고기나 굶고 떡이나 먹으라는 예수님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분들이 도대체 왜들 이러시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다급한 것도 문제가 아닐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결코 사람을 상대로 억지로, 무리하게 일을 하시지 않았다.

8.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그냥 "예"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길까?

차마 뻔뻔스럽게 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아시잖아요 하는 표현이다.

9. 왜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했음을 은근히 일깨우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세 번이나 사랑고백을 하게 함으로 세 번의 잘못이 깨끗이 덮여지기를 바라고 계실 것이다.

10. 아무래도 이 글이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씌어졌음이 분명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 있다면 몇 절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19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하면서 죽는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점, 즉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11. 18절을 한 마디로 요약해 버린다면?

순교하리라.

12.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겨우 끝이 났다. 베드로는 어쩌면 빨리 이 장면에서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낯이 뜨겁다. 그래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가? 예수님,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네 일이나 신경 써라

13. 예수님의 대답이 나중에 다른 뜻으로 오해를 받았다. 사람들이 독해력이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자기 수준이나 생각대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같은 말이 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듣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머리가 없으면 들리지 않는다(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말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하셨다.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잘 쓰고 있는 우리의 말이 실상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자(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뜻도 잘 모르는 말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남의 말을 알아들은 것으로 착각을 하기도 한다. 언어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리기도 한다. 이것이 말이 정확하게 전하여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말하는 사람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신중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셈이다.

14.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의 태도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중요한 일을 핑개치고 고기나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을 피워 놓고 조반을 먹이시는 것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불러 사랑고백을 하게 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방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야단, 책망, 꾸중부터 하고 난 후에 그렇지만 용서하겠으니 이제부터는 잘 해라.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지 않았을까? 예수님이시니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비난의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 나타내고 있다. 사랑만 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더더 보여도 그 방법이 확실하고 효과적이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무시되기 쉬운 점이 바로 이것이다.

15.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할 일이 그렇게도 없으셨을까?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시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았을까?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일은 다급하게 실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사명의 소중함을 차분하게 일깨우시고 계시는 것이다. 한시가 급하다 해도 사람을 만드는 일은 부품 갈아 끼우듯이 되는 일이 아니다. 온갖 정성과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속으로 묻어두고 차근차근 정성을 들이며 어루만지는 노력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필수적이다. 총칼로 밀고 들어가서 믿을래 죽을래? 안 믿으면 어차피 지옥으로 갈 것이니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다.

16. 20-24에 나오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묻던 자’, ‘그 제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 이 제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요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13장의 14번을 참고하세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과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이 언급될 뿐이다. 하기는 제목에는 요한이 등장하지만 이 제목은 나중에 후대 사람이 붙인 것이지 요한 자신이 붙인 것은 아니다.

17. 다음 구절의 내용과 가장 가까우면서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한 구절을 말해 보세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말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 21:25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찬송가 404장의 3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